

Threads of Splendor:

千紫萬紅
천자만홍을 짓다



Threads of Splendor:

천_千자_紫만_萬홍_紅을 짓다



Contents

- 04 **발간사**
Greeting
- 06 **서문**
Foreword
- 12 **시간과 공간을 엮는 C.E.M의 비교문화 전시**
CEM's cross-cultural exhibitions that combines time and space
- 20 **Threads of Splendor: 시작에서 지금까지**
Threads of Splendor:
from Historical Textiles to Modern Design
- 36 **Threads of Splendor: 시작**
Threads of Splendor: Historical Textiles
- 52 **Threads of Splendor: 지금**
Threads of Splendor: Modern Design
- 80 **멕시코에서 변용된 동아시아 섬유예술**
Embroidery in Translation Project:
Collaboration with Indigenous Chiapanecan
Artisans Reinterpreting Traditional Korean
Textiles
- 84 **작가소개**
About our Artist

발간사

Greeting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특별전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개최를 축하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학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십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문화선도 대학으로서 숙명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교육과 전시 및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고 제공하여 대학박물관으로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역사적인 유물과 현대 섬유예술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섬유예술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전을 개최하기 까지 관심과 헌신을 다하여 주신 정영양 관장님과 박물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숙명인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과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s new exhibition *Threads of Splend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s Korea's first national private women's school which takes great pride in its history and tradition, and C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Sookmyung's standing as a cultural leader of our society for the past twelve years. Going further, CEM is committed to providing more cultural and artistic opportunities as a University museum through exhibitions, education and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is exhibition, CEM's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and art works of contemporary textile artists will come together and provide all of us with an invaluable occasion to enjoy beautiful textile artwork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I would like to express a special gratitude to Dr. Chung Young Yang, director of CEM, and staff members of the museum for their enthusiasm and dedication. I sincerely hope that the University, the community and the whole audience will take this exhibition a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artistic horizons and find the deepest inspiration.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Presi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ungAi Kang



Threads of Splendor: 千紫萬紅 卷一

서문

정영양
정영양자수박물관 관장
설원재단 창립자, CEO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전시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섬유 컬렉션은 현대 섬유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이 개관하고 지난 12년 동안, 박물관 소장품은 숙명여자대학교와 학계, 예술계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전시회, 교육자료, 또 학술 연구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섬유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이 컬렉션은 동아시아 견직물 자수의 역사를 자수기법, 스타일,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기록하는 교육자료로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 소장품은 중국의 자수기술과 복식의 형태, 그리고 장식 문양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패턴들을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도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수 연구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수 문화를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의 독특한 스타일과 심미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즉, 중국, 일본, 한국의 자수 복식의 비교 연구를 시작한 것이 1970년대입니다. 이러한 비교문화 연구를 학계에 처음 시도했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자수학문 정립자世界刺繡學文定立者”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생소하고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제 박사학위 논문인 <중국, 일본, 한국 자수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mbroidery in China, Japan, and Korea)>은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자수 섬유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바탕이 되어 저의 첫 저서인 [동양 자수의 기술(The Art of Oriental Embroidery)]이 197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으로부터 “올해를 대표할 만한 예술분야의 수작(distinguished art book of the year)”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참고도서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초반 노력으로 인해 자수 예술과 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현재 정영양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수집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물을 수집했던 것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예술 그 자체로서 단지 시각적, 심미적으로 감상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견직물 자수의 역사적, 문

화적 발달 과정을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학계와 예술계, 그리고 섬유 애호가에게 귀중한 참고자료와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그간 수집된 자수 컬렉션이 고국에 기증되면서 정영양자수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방대하고 포괄적이라고 인정받는 자수 컬렉션이 등장하면서 자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섬유 연구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직물 컬렉션을 직접 눈으로 보며 연구할 기회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는 책이나 인쇄된 자료로만 자수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가 놓아진 의류와 장식품들을 실제로 비교연구하게 되면서, 한국의 자수문화가 어떠한 역사와 풍속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또 국제적인 맥락 내에서 각 지방의 자수인들이 그 문화에 어떤 방향으로 독특하게 기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적인 목적과 함께,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소장 유물들은 국내 관람객에게 전통적인 수공예 작가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또 심미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수공예는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공예인과 작업은 점차 줄어들고, 수공예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계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의 손과 창의성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회용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공예(handcraft) 작품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손으로 만들어진 품목들(craftmanship)이 새롭게 평가되고 수작업과 기계생산의 역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추세는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에서 2016년 개최했던 “마누스x 마키나: 테크놀로지 시대의 패션(Manus x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이라는 전시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회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수공예와 기계생산을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는 전통적인 자수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테마 전시회들을 열어 영구 컬렉션 중 대표적 소장품들을 전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시들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명작들을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하는 도록과 함께 선보이면서 동아시아 자수의 역사와 그것이 오늘날 갖는 의미를 전세계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아동 체험 학습과 성인을 위한 워크샵과 강좌 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직물 애호가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일조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물관은 다행히도 구글의 초청을 받아 세계 어느 곳에 서나 사이버 관람객이 소장 유물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기에 이러한 외부 활동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문화와 교육계도 우리 박물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장 유물들을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교육자료로 인정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부산박물관에서 대여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영구 컬렉션 중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고 전시회를 열거나 카탈로그 제작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자수기법과 문양이 어떻게 발달하고 확산되었는지 추적해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토대가 확고한

바탕이 되어 2015년에는 “Wearable Art: 예술을 입다”, 그리고 올해는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 千紫萬紅을 짓다*”라는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소장 유물들이 이 시대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작품 활동을 위한 예술적 도약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현대 패션작가들의 의상을 함께 전시하여 나란히 놓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에서 개최된 “중국: 우리를 통해 들여다보다(*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와 같은 전시회는 이러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박물관 사상 최대 관람객을 유치했다는 이 전시회에서는 ‘역사와 학문’을 ‘현대와 상업’에 연결 짓는 방식을 통해 현대 섬유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과거의 기법이나 아이디어, 대상을 끌어와 지금 자신들의 시공간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전시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 千紫萬紅을 짓다*” 전시회에서도 참여 작가들은 이렇듯 과거를 참신한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의 열매를 그들의 작품작으로 선보입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소장 유물이 창의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선인들의 자수 대작들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영감을 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irector's Foreword

Young Yang Chung, Ph.D.

Director,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Founder and CEO, Seol Won Found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present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s new exhibition *Threads of Splendor*. In this exhibition, CEM's rich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serves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In the twelve years since CEM's inauguration, the museum's permanent collection has been utilized for exhibition, teaching, and research purposes, for the benefit of the Sookmyung community, specialist scholars,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alike. Encompassing a broad range of world textiles, the collection was formed expressly as an educational resource documenting the technical, stylistic, and cultural history of East Asian silk embroidery.

The CEM collection outlines the development of embroidery techniques, costume forms, and decorative motifs in China, as well as the adop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se cultural patterns by peoples across East Asia. The study of these embroideries deepens understanding of East Asian history, art, and culture, and viewed comparatively they illustrate great cohesion throughout East Asia while also highlighting the distinctiveness of local expressions in regional styles and aesthetic preferences.

The comparative study (批教) of the embroidered costumes of East Asia – China, Japan, and Korea – has been the primary focus of my own research since the 1970s. One of the first academics attempting this type cross-cultural approach (批教研究), I established myself as a scholar of world embroidery (世界刺繡學文定立者), at a time when the field was little known or appreciated. My Ph.D. dissertation, *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mbroidery in China, Japan, and Korea*, was the first in-depth academic study of this topic, and helped provide a foundation for embroidery as an academic field. This research formed the



basis for my first book, *The Art of Oriental Embroidery* (1979), which was recognized b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as distinguished art book of the year and has remained a standard reference in the field. I am grateful to see that these early efforts on my part have helped foster an ever-increasing appreciation of the art of silk embroidery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undertaking this research, I also began assembling the collection now housed at CEM. The purpose of building the collection was not as a financial investment, nor was it for the visual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art for art's sake. The mission was to create a lasting docu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East Asian silk embroidery, thus providing a valuable reference and source of inspiration for scholars, artists, and textile enthusiasts. In 2004 I presented this collection,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of its kind, as a gift to my homeland with the inauguration of CEM. For the first time Koreans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world class textile collection first-hand, opening up a new avenue for education in a subject previously only taught through printed material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actual embroidered garments and furnishings, Koreans at last could se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foundations on which the art of Korean embroidery was based, and fully comprehend the unique contribution of local embroiderers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The CEM collection helped to open Korean viewers' eyes to the technical mastery and aesthetic achievement of artists working by hand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In 20th and 21st century Korea as in many nations, the laborious and time-consuming art of hand production often has been viewed as incongruous with fast-paced modern life, and its practice and appreciation have diminished. Nonetheless, human hands and creativity are crucial in the manufacture of even the most mechanized of products, from cell phones to automobiles. Furthermore, with the global spread of semi-disposable "fast fashion," one-of-a-kind hand craftsmanship has emerged as a coveted status symbol. This re-assessment of craftsmanship, and

the dynamic intersection of hand and machine production, has come to the forefront with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2016 exhibition *Manus x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 which explores how fashion designers are integrating the handmade and the machine-made.

Since 2004, CEM has proudly displayed highlights from the permanent collection in a series of thematic exhibitions that underscore the artistry of traditional hand embroidery. Accompanied by bilingual catalogues, these exhibitions have presented masterpieces from various cultures and time period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global audiences about the history of East Asian embroidery and its relevance in today's world. The museum has actively fostered future generations of textile enthusiasts through a robust education program, including hands-on activities for children as well as workshops and courses for adults. This outreach will expand greatly in the near future, as CEM has been invited by Google to share its collection with cyber audiences by making high resolution images of collection objects easily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I am plea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education field have acknowledged CEM's efforts and the value of the collection as a cultural asset and educational resource. Korean National Museums that have displayed CEM collection objects includ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aegu National Museum, and the Busan City Museum.

During CEM's first decade, the museum's exhibitions and catalogues focused primarily on historical masterpieces from the permanent collection, trac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embroidery techniques and motifs. With these historical foundations firmly established, CEM's 2015 exhibition *Wearable Art* and this year's *Threads of Splendor* present the collection as an artistic springboard for the creation of new works by young designers. Intense global interest in this dialogue between old and new, juxtaposing historical museum collections with contemporary fashion, is evidenced by exhibitions such as *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held in 2015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attracting the museum's largest ever attendance. Linking the historical and scholarly with the modern and commercial, this approach encourages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to look to the techniques, ideas, and objects of the past in creating new expressions that speak to their own time and place. Examining the past with fresh and appreciative eyes, the artists in *Threads of Splendor* reveal the rich reward of engagement with their predecessors. I am heartened to see the CEM's magnificent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utilized so successfully as a creative resource, with the masterworks of the past continuing to teach and inspire new generations.



시간과 공간을 엮는 C.E.M의 비교문화 전시

CEM's cross-cultural exhibitions that combines time and space

홍경아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학예사

Hong, KyoungA, Ph.D.

Chief Curator,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박물관의 전시는 전시품으로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의 특성, 내포하는 의미 및 미적 성취와 같은 가치들을 보여준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개관 이후로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왔다.

문화다양성을 화두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은 박물관이 가진 특성과 다문화적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야 하며, 이것은 비교문화 전시를 확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비교문화 전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삶을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 박물관에서의 비교문화는 사람들과 사회문화 또는 예술을 연계하는데 있어 어떠한 매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전까지 타 학문에서의 비교문화란 상당 부분 같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렬식 비교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같은 전시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시 기획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비교문화 전시는 매우 복합적인 양식을 가진다.

A museum exhibiti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ertain periods and regions, their implications and artistic achievements through its collection. Since its inauguration,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 has presented communication methods to better understand and respect various cultures through its exhibitions.

With cultural diversity as the main theme, a museum further develops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reaffirm its multi-cultural commitment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ch effort will work by expanding cross-cultural exhibitions. In other word, cross-cultural exhibitions are important and deserve close examination and special attention.

Generally, a museum has understood cultural diversity by employ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the people's lives as well as time and space. Cultural comparison can vary in its meaning depending on what medium the museum employs to connect people with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people with art.

Up to now, cultural comparison in other fields has mostly focused on simple parallel comparison among exhibited items in the same genre. However, taking a closer look at what constitutes the exhibition, it becomes evident that even the same collection can be displayed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through diverse method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society and culture. In this sense, cross-cultural exhibitions are complicated.

그동안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직물에 대해 주제를 달리하여 비교문화적인 관점의 전시를 해왔다. 비교문화 전시로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2005년에 기획된 <Design-When the Lines Meet>전이다. 전시된 직물은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의 유물들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발된 디자인 언어를 집약하였다.(도판1, 도판2, 도판3)

CEM has continuously presented exhibitions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extiles from the cross-cultural perspectives, with a different theme each time. A noteworthy example of CEM's cross-cultural exhibitions was *Design-When the Lines Meet* in 2005. Historical textiles from East Asian regions were displayed that integrated design languages from the ancient to modern period.(figure 1, 2, 3)



도판1 | Fig.1
<Design-When the Lines Meet> 도록 표지
<Design-When the Lines Meet> cover



도판2 | Fig.2
자수봉황문 이불 부분, 중국 초대(楚代)
Embroidered quilt (detail), Chinese,
4th to 3rd century BCE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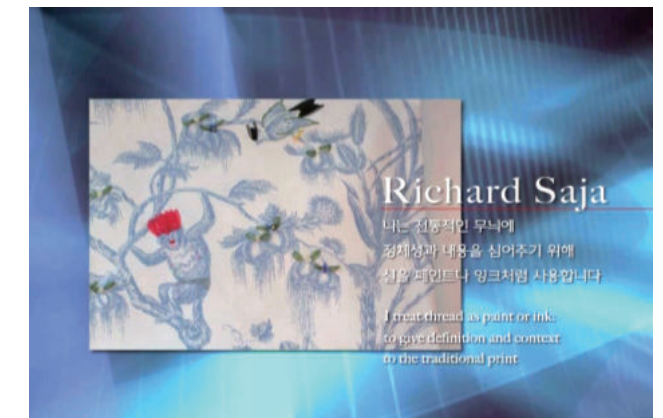
도판3 | Fig.3
후지산용문고소데 부분, 일본 에도시대
Kosode with dragon and Mt. Fuji (detail), Japanese, Edo period

동아시아의 섬유전시를 통해서 직물들이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문화적·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복식을 착용했던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직물문양과 디자인의 의미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Design>전시는 사람들이 직물의 디자인을 통해 어떻게 삶을 형성해 나가고 발전시키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디자인 과정에 대한 폭넓은 반영을 위해 중적인 비교의 형태인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전시의 말미에는 '현대 디자인의 클래식 영감'(Modern Design Inspired by the Classical)이라는 코너를 두어 전시되는 동아시아의 문양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제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전시된 영상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비안 탐(Vivienne Tam)의 작품과 인터뷰이다. 그는 다양한 문화를 연결한 독특하고 고풍스런 디자인으로 주목 받는 현대 패션 디자이너다. 비비안 탐의 작품은 오래된 섬유예술품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그의 작품과 대조를 이루는 유물을 영상으로 함께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두 번째는 리처드 사하(Richard Saja)로 그는 고대 디자인이 인쇄된 천에 독특한 자수를 덧붙여 새로운 개념의 자수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작가이다.(도판4, 도판5)

This exhibition of East Asian textiles has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se textiles have been produced and used. Furthermore, it was an opportunity to compare the patterns on the textiles and figure out the implications. The Design-When the Lines Meet, therefore, examined through textile designs how people have lived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made a meaningful effort to compare past and present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the design processes. Impressively, the exhibition had a section called "Modern Designs Inspired by the Classics." This section was designed to demonstrate the audience that the East Asian patterns on display have continuously inspired designers to this day. During the exhibition a video clip was on display, showing the design works of and an interview with Vivienne Tam. Tam is a celebrated modern fashion designer based in New York. She has received special attention for her unique antic designs that connected different cultures. Her works drew inspiration from textile artworks in the past. So in the video clip, each of her work pieces was shown side by side with its matching historical textile, the source of the inspiration. Richard Saja, have produced unique and creative art works by adding special embroideries on textiles which had already been printed with ancient designs. They were a completely new concept in embroidery designs.(figure 4, 5)



도판4 | Fig.4
비비안 탐 전시 영상 부분
Vivienne Tam's video clip on display



도판5 | Fig.5
리처드 사하 전시 영상 부분
Richard Saja's video clip on display

이 두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나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것을 결합한 스타일이다.” “나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었을 때 박물관을 찾는다.”고 인터뷰하고 있다. 전시 영상은 두 작가가 디자인의 영감을 받은 전통과 박물관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넣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두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대의 모티브가 지속적으로 디자인 영감의 근원이 되고 있음과 고대와 현대 디자인의 기술적·미적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전시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이어주던 문양의 의미와 수단으로 사용된 기법들을 기록하여, 비교문화 전시의 방법적인 전망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박물관에서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장품이다. 전시품은 전시의 목적에 따라서 다차원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전시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만들어 질 수 있지만 전시품 자체는 영구불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품들을 어떠한 의도로 선택하여 전시하느냐 하는 결정은 기획자의 몫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만드는 구성원들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전시품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 박물관의 전시들은 위의 제약적인 요소들, 즉 소장품의 성격과 전시 디자인, 공간과 인적 구성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 정영양자수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으로 열린 <Wearable Art: Inspiration in Thread>전은 비교문화 전시의 개념의 확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전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형태와 색’을 교류하는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다.

The two artists mentioned something in common which was evidently shown in their interviews: “My works are the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When ideas run out, I visit museums.” The video clips highlighted the message by inserting on the screen the two main keywords, “tradition” and “museum.” Their interviews confirmed that ancient motives have continually served as source of inspiration in design and provided the audience the opportunity to compare technical and aesthetic achievements between the ancient and the modern. Therefore, such exhibitions documented the meanings of patterns that connected the spiritual and material worlds as well as the techniques that were used as a medium. In this sense, the exhibitions have been highly evaluated as a venue to present the big picture for cross-cultural exhibi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presenting social and educational exhibitions and developing such museum programs was the collection. Exhibition pieces can be installed multi-dimensionall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The perspectives in the collection can vary, but the collection itself is unchanging. Therefore, it is all up to the exhibition planner to decide with what intent he/she would select items among the collection to display them during the exhibition.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check if the exhibition planning team fully understands societies and cultures and properly interprets them through the collection. In fact, museum exhibitions generally look similar in terms of the nature, designs, space and the working staff. In 2014, CEM opened an exhibition *Wearable Art: Inspiration in Thread* in commemoration of the museum’s 10th anniversary. This special exhibition was a good example that showed how much the concept of ‘cross-cultural’ can be expanded. To cite some examples, the following were on display under the title of “the intersection of forms and colors.”

하피는 중국 청대의 여자 예복용 조끼로 흉배를 달아 계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존 리스는 이러한 하피의 형태를 모티브로 태피스트리 작품을 제작하였다. 실의 질감과 광택을 이용한 태피스트리는 바구니를 짜듯 엮어서 하피의 형태를 재해석한 것이다.(도판6) 또 다른 기모노 형태의 작품은 인체의 근

육을 표피화 하여 태피스트리로 표현하였다. 빨간 피와 근육이 옷 표면에 해부되고 근육의 질감을 산호로 섬세하게 나타냈다.(도판7) 김미식 작가는 하피의 원형에 우리나라 옛 한복감을 이용하여 퀼팅 하였다. 지금은 나오지 않는 한복감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우리나라 색조각보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하재민 작가의 옷은 죽음, 탄생, 부활의 주기를 보여주는 조각적인 섬유작업이다. 이 작품들은 어깨 부분에 틀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중국 몽골 포와 함께 전시되었다. (도판8, 도판9)

Xiapei (霞帔) was a ceremonial vest women in Qing dynasty wore. A rank badge was attached to represent the wearer’s rank. Drawing inspiration from *xiapei*, Jon Eric Riis created a tapestry, reinterpreting the original form of *xiapei* through the threads’ texture and gloss. (figure 6) Another artwork on display was a kimono-style robe with the form of human muscles expressed into a tapestry. Blood in red color and human muscles were analyzed onto the surface of the cloth, and the texture of muscles was delicately expressed with coral. (figure 7) Artist Kim Misik made a patchwork quilt on original *xiapei*. Kim attached small patches of old Korean cloth, which is no longer in use, and built the *xiapei* into a Korean style colored quilt work. Ha Jaemin’s work signifies the cycle of death, birth and rebirth. His work was displayed along with traditional Mongolian outer coat 蒙古袍, with pads inserted in the shoulder areas to make the coat look more three-dimensional.(figure. 8-9)



도판6 | Fig.6
좌_ 김미식, <과거로의 여행>, 2014, 중_ 하피, 중국 청대 19세기, 우_ 존 에릭 리스, <Princes>
Left_ Kim Misik, <A trip to the past>, 2014
Middle_ Xiapei, Chinese, Qing dynasty 19th century
Right_ Jon Eric Riis, <Princes>



도판7 | Fig.7
좌_ 존 에릭 리스, <Flesh Kimono>, 우_ 홍색학문우치카케, 일본 에도시대
Left_ Jon Eric Riis, <Flesh Kimono> Right_ Red Uchikake with a design of cranes, Japanese, Edo period



도판8 | Fig.8
몽골포, 몽골 19세기
Traditional Mongolian outer coat, 19th century Mongolia



도판9 | Fig.9
하재민, <환생>
Ha Jaemin, (reincarnation)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서 패션의 시간적 연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이 전시는 박물관의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복식들과 그것에 영감을 받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의상이 소개되었다. 현대미술가들과 의상디자이너들이 과거와 현재의 기술적 진보와 전통적 계승을 융합하여 창조적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전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물품과 데이터, 창조적 작업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만든다. 앞서 기획된 전시들에서는 여러 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시 설치에 필요한 새로운 재료와 기술적인 지원 등을 통해 전시 기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사회적인 사안들과 새로운 것에 대한 관람자들의 반응과 요구가 있다. 그것을 읽어내는 것 또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은 같은 것일지라도 내일이면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비슷한 사물로 발전하게 된다. 전시는 전시품을 통해서 관람자 사이에 소통이 일어 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이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전시가 만들어 지는 목적에 따라 전시품의 종류가 달라지며 전시의 성격에 따라 장르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시는 전시품과 전시장 환경, 또는 시각적 매체 및 장치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관람자에게 전시품 하나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성과 연출을 통한 문화적 의미까지 전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전시가 자신의 삶과 연관되었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전시를 통해서 나 개인의 역사 또는 경험들과 더불어 정보를 얻게 되고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문화적인 향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영양자수 박물관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엮어 사람들의 삶과 직결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고 토론하도록 전시의 비교문화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In this exhibition, the museum's historical textiles were introduced along with artwork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at home and abroad who were inspired by these historical textiles. In this collection it was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engagement of fashion with time was very important. It is therefore worthwhile to note that contemporary artists and fashion designers provided a new foundation for creation which combines technical advances both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s well a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 It is through the exhibition preparation process that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appears on collected items,

data, creative practice and works. In previous exhibitions, performance of an exhibition plan was confirmed through new materials for exhibition installation and technical support to make a cultural comparison. The audience's response to social issues and demand for something new also affect the performance of exhibitions. Again, it is a museum's social responsibility to recognize such responses and demands.

The items we use today can change overnight into something similar but different, something made with different materials. An exhibition conveys a message that encourages the audience to communicate one another through the collection on display. In other word, the collection connects the audience. The intent of an exhibition decides what will be on display, and the nature of an exhibition determines the genre of the exhibition. Therefore, an exhibition should deliver the audience information of each exhibit by properly arranging exhibits, the surrounding, visual media and other installation.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should deliver cultural connotation through arrangement and directing of the exhibition. The audience is more impressed when they feel the collection on display look like their lives. This is because the audience gets, from the exhibition, information that is like their personal histori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wisdom they need in their lives, not to mention the culture. CEM is committed to its efforts to expand the cross-cultural exhibitions by combining time and space. The efforts will provide the audience with a venue to come up with a variety of new ideas that are related to their lives and to discuss them.

Threads of splendor : 시작에서 지금까지

Threads of splendor: From Historical Textiles to Modern Design

정혜란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학예사

Jung, HyeRan

Curator,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전시기획과 진행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섬유예술전문박물관으로 동아시아의 섬유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섬유예술분야를 탐구하고 관련 작가를 소개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Threads of splendor”전은 박물관이 소장한 옛 유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해석을 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대학에 소개해있고 대학의 주요 미션은 교육이다. 따라서 다른 대학과의 협업에 중점을 두고 서울 소재 대학의 섬유예술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작가 선정을 진행하였다. 총 8개 대학에 추천서를 요청했으며 이 중 5개 대학과 협업이 성사되어 8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외 및 국내 중견작가가 합류하여 총 13명의 작가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 워크숍을 가졌고, 이 시간에 전시기획의 이해, 박물관 소개, 소장유물 설명, 질의응답, 도록배부 등이 이루어졌다. 작가들은 유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옛 유물이 가진 아름다움, 문양의 뜻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작품에 참고할 유물의 선정과 이에 따른 작품 구성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한 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작품을 제작하였다. (도판1, 도판2, 도판3) 작품의 소재나 형태, 방법 등 작업에 대한 제한은 없었고 유물의 형태, 문양, 색채, 관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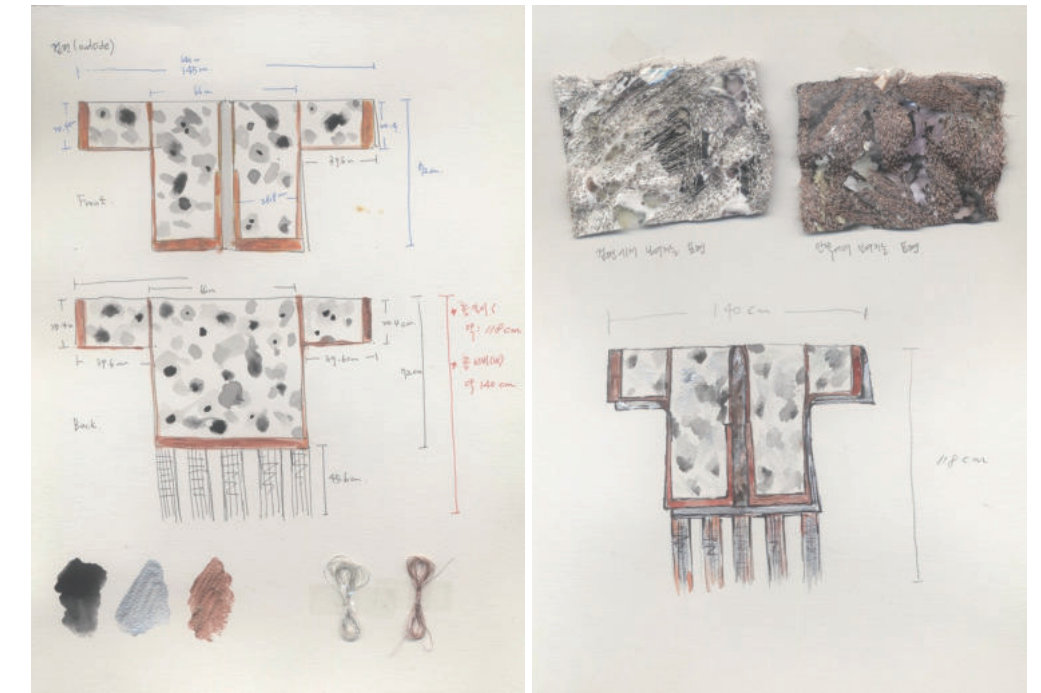
Planning the Exhibition

CEM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dedicated to historical textiles from East Asia, has continued its effort to research into textile arts of the future and introduce textile artists. CEM have planned the exhibition *Threads of Splendor* to present contemporary textile artists who drew inspiration from CEM's historical artifacts, interpreted them with a modern perspective and created their own art pieces.

CEM is located on the campus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a University museum, CEM have concentrated our effort to build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academia and the artists. The first step to planning for *Threads of Splendor* was to select participating artists. We submitted a request to professors of eight universities for their recommendation of textile artists, and five of them accepted our request. Thanks to their cooperation, we selected eight textile artists, and then five additional artists joined us from at home and abroad.

Participating artists came together for a workshop at CEM, during which exhibition plans were shared,

CEM collection was carefully examined, discussions and a Q&A session were held, and previous exhibition catalogues were distributed. In particular, the artists had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beauty of CEM's historic textiles and learn what each embroidery pattern symbolizes. Then the artist found their own historical object that inspired them to create an art work. The artists made rough sketches of what they plan to build.(figure1-3) For about six months after the workshop, the artists completed their works. There were no restrictions imposed on materials, forms, or methods they use, and free approaches were encouraged in terms of forms, patterns, colors or any ideas.



도판1 | Fig.1
조예령, <More Than> 초안
Ye ryung Cho, <More Than> rough sketches



도판2 | Fig. 2
선다혜, <Tube Series> 초안
Dahea Sun, <Tube Series> rough sketches



도판3 | Fig. 3
시에나 마르츠, <Subo Straps> 초안
Sienna Martz, <Subo Straps> rough sketches

문양의 이미지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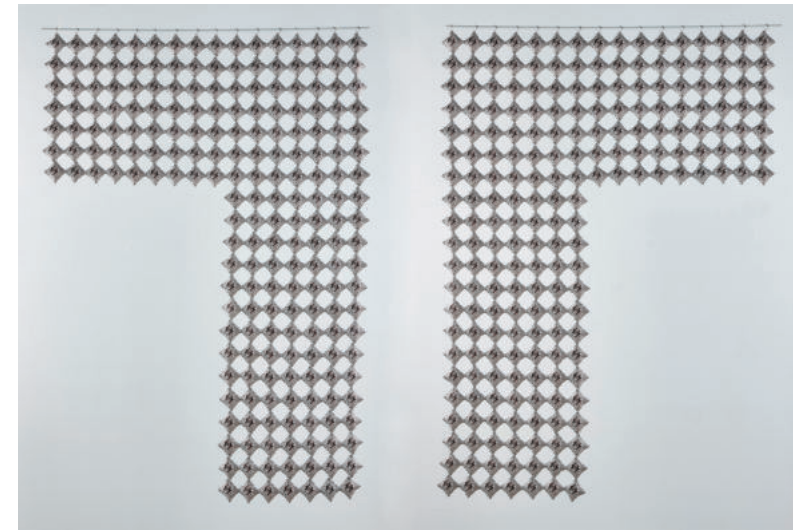
문양은 복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능과 함께 입은 사람의 지위, 소망을 나타내며 당시 사회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이미지이다. 작가들은 유물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적용하였다.

허영순, 이수연은 유물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섬유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허영순의 <cell2016-08>(도판4)은 셀 패턴의 형태에 유물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반복 재생된 이미지 형태는 공간을 구성하는 조형작업을 이룬다. 작가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세포조직의 생장구조와 확산에 비유하며 섬유미술을 내부적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으로 확장하는 공간연출로 전개하고자 하였고 밝혔다. 마름모형의 각 모티브는 고리와 바느질로 이어져 길이가 길고 소매가 짧은 복식의 모양으로 확장된다. 이 확장은 품과 소매를 가진 복식의 기본형이라 볼 수도 있고 박물관 소장품의 일본 복식(도판5)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각 마름모 모티브에는 쌍학문 흉배(도판6)가 디지털프린팅 되어있다. 흉배는 명 홍무제가 제정한 것에서 기원하며, 문관과 무관을 구분하고 품계를 나누어 각 상징을 달리하였다. 문관은 날짐승을 무관은 들짐승으로 나타냈으며, 문관은 품계에 따라 학, 금계, 공작 등의 새를 사용하였고 무관은 기린, 사자, 호랑이 등의 문양을 차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세종 때부터 흉배를 사용한 기록이 나타나며 단종 때부터 흉배제도가 실시되었다. 쌍학문 흉배는 당상관이 착용한 것으로 정3품 이상이 사용하였다. 품계를 나타내던 쌍학의 문양은 단순화, 반복화를 통해 세포분열과 같이 무수히 전사되어 장식되었다.

Patterns Changed

Patterns have many functions; they decorate clothes, express wishes, represent the wearer's social status, and sometimes reveal the social unconsciousness of the time.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s modernized the patterns from the historical textiles and applied them to their works.

Her Young soon and Lee sooyeon digitalized the artifacts' images and projected them on textiles. In <cell2016-08> (figure 4), Her inserted an image of an artifact in a cell-patterned form, and then reproduced the cell patterns until they form an artwork. Her compared her practice with a cell that grows and spreads. According to her, textile arts expand not only within an assigned space but beyond the boundary of the space. In her work, diamond-shaped motifs are connected by rings and stitches and expand to form a long and short-sleeved robe. The completed piece looks like a sewing pattern or Japanese kimono (figure 5). Each diamond-shaped motif contains a digitally printed rank badge with a pair of cranes. (figure 6) A rank badge or *hyungbae* originated from the Ming dynasty under the reign of Emperor Hongwu (1368-1398). The emperor established a system where court officials were given different patterns of rank badge depending on their rank. Civil officials were given bird patterns such as a crane, golden pheasant, or peacock according to the official's rank while military officials were assigned animal patterns such as a girin, lion, or tiger. In Korea, the first record of a rank badge appeared during Sejong's reign (1418-1450) and King Danjong (1452-1455) established the system of rank badge. A rank badge with the pattern of a pair of cranes was for *Dangsangwan* (officials of the senior third rank or above). In the artwork of Her Young soon, the pattern of a pair of cranes was simplified and repeated throughout the whole piece like cell division.



도판4 | Fig.4
허영순, <cell2016-08>, 2016
Young Soon Her, <cell2016-08>, 2016



도판5 | Fig.5
송학후지산문 우치카케, 일본 에도시대
Uchikake with cranes, pine trees, and Mt. Fuji,
Japanese, Edo period



도판6 | Fig.6
일품문관선학흉배, 중국 명대
First rank civil official's rank badge with crane,
Chinese, Ming dynasty

이수연의 <확장I, II, III>(도판7)는 유물의 이미지를 실크에 프린팅 하여 한지로 만든 보자기에 조각 보기법으로 연결한 것이다. 세 개의 보자기에 각각 문자도, 원삼, 자수열쇠패의 이미지를 변용하여 작업하였다. 작가는 유물을 디지털 이미지화하여 평면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고 새롭게 창조된 유물의 이미지는 얼마든지 재생산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문자도는 한자의 의미와 조형성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자에 관련된 고사古事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많다. 흔히 쓰이는 문자는 효孝·제禮·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로 삼강오륜 관련이다. 정영양자수박물관 소장품의壽자문 자수는 목숨 수壽의 한자 형태 안에 장

수, 부귀를 뜻하는 학, 소나무, 모란이 다양하게 장식되어있다.(도판8) 이수연은 효 효 문자에 장수를 뜻하는 소나무와 학을 배합해 새롭게 이미지화하였다. 작가는 학업으로 인해 집을 떠나 생활하였기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였고, 이 마음을 담아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효 효문자를 실크에 디지털프린팅 하고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를 조각보형식으로 이어 붙여 커다란 보자기 형태로 구성하였다.

Lee Sooyeon, in her <Expansion I, II, III> (figure 7), printed the images of historical objects on silk and attached the images to a *bojagi* (wrapping cloth) using the patchwork technique. Lee attached the image of a Chinese character, *wonsam* (ceremonial robe), and a key holder on three pieces of *bojagi* each. According to the artist, she digitalized the images of historical objects and worked them on a new surface. She added that the newly created images of historical objects can be reproduced and used in our daily lives. The image of a Chinese character is both for the meaning and the form. In many cases, the characters are derived from ancient idioms. The most popular characters include 孝(filial piety), 悌(brotherly love), 忠(loyalty), 信(confidence), 禮(propriety), 義(righteousness) and 廉(integrity), all come from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三綱五倫). The embroidered character 壽(longevity), which is from CEM's collection, contains the patterns of cranes, pine trees, and peony inside, all signifying longevity or wealth and honor. (figure 8) Lee sooyeon inserted the images of pine trees and cranes, symbols of longevity, in the character 孝 (filial piety). Lee said she missed her parents very much while she was away for study. So she expressed her deep affection for her parents and her wish for their longevity in the character. Lee digitally printed the character 孝 on silk, attached the image on soft but durable hanji using a patchwork technique, and finally created a big *bojagi*.



도판7 | Fig.7
이수연, <확장 I, II, III>, 2016
Sooyeon Lee, <Expansion I, II, III>, 2016

도판8 | Fig.8
수자문 자수, 중국 청대.
Embroidered character 壽 (longevity),
Chinese, Qing dynasty

Threads of Splendor: 千禧紅紅紅



도판9 | Fig.9
마름질하기 전 용포, 중국 청대 Uncut dragon Robe, Chinese, Qing dynasty

한아람은 용포의 문양을 현대의상에 접목하였다. 용포는 황실과 관료의 의복으로 문양의 의미가 다채롭고 장식의 기술이 섬세하고 뛰어나다.(도판9) 용포의 문양은 우주의 질서를 보여준다. 하단의 물과 산은 이 세상을 나타내며 구름 속의 용은 권위의 상징이다. 한아람은 검은 점프수트의(도판10) 가슴부위에 용의 윤곽을 금사정금수로 수놓고 부분부분을 색으로 채웠다. 바지의 양끝에는 용포의 하단부에 있는 산수문을 변형하여 장식하였다. 입수^수와 물결문을 씨앗수, 평수, 금사정금수로 수놓았다. 용포에 쓰인 자수기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생략과 절제로 디자인을 재배치하였다.



Aram Han incorporated the patterns of *yongpo* (royal ceremonial robe) into modern design. A *yongpo* is decorated with a variety of symbolic patterns in exquisite techniques. (figure 9) The patterns of *yongpo* are symbolic of the order of the universe. Water and mountains at the bottom represent the earth, and the dragon surrounded by the clouds signifies the authority. Han embroidered the outline of the dragon with gold thread on the front of the black jumpsuit (figure 10) using couching stitch, and filled some part of the patterns with colors. The ends of the jumpsuit were decorated with modified images of Chinese characters, which are the same patterns we find at the bottom of *yongpo*. Wave patterns were embroidered with seed, satin, and golden thread couching stitches. Han used all embroidery techniques *yongpo* used, but rearranged the design by skipping some of them.

도판10 | Fig.10
한아람, <Emperor's Robe to G-Star Jumpsuit>, 2016
Aram Han, <Emperor's Robe to G-Star Jumpsuit>, 2016

재료를 새롭게 구성하다

선다혜는 튜브 형태의 원형 유닛들을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하피 형태를 재현하였다.(도판11) 재료는 비닐 계통의 소재로 유연하면서 질기다. 선다혜의 <Tube Series>(도판12)는 재료의 부드러운 특성을 이용한 soft sculpture의 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긴 투공성을 가진 튜브형 유닛은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며 이를 서로 연결하여 하피의 형태를 시도했다. 하피는 청대 여성 예복으로 소매가 없는 조끼의 형태이다. 청대 귀족 여성들은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흉배를 착용할 수 있었고 하피에는 품계를 나타내는 흉배가 달려있다. 청대의 하피가 권위를 드러내는 용도라면 현대에 재현된 하피는 부드러운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하여 소재가 가지는 조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New Materials

Dahea Sun recreated *xiapei* (figure 11), a ceremonial vest for Qing noble women, by connecting tube-typed circular units. A vinyl-like new material was used, which is soft but durable. Sun's <Poeticraft series> (figure 12) is a type of soft sculpture because it used soft material. Tube units of loose circles are pliable and can change their forms. Sun connected all these units to represent a modern *xiapei*. A Noble woman in Qing dynasty wore a rank badge which signifies her husband's rank, and *xiapei* also had a rank badge on it. The difference between historical and modern *xiapei* is, the Qing *xiapei* emphasized the wearer's authority while Sun's *xiapei* focuses on the material's soft property.



도판11 | Fig.11
하피, 중국 청대
Xiapei, Chinese, Qing dynasty



도판12 | Fig.12
선다혜, <Tube Series>, 2016
Dahea Sun, <Tube Series>, 2016

조예령은 묘족 예복(도판13)의 고색창연함, 아름다움을 신소재인 타이벡을 이용하여 작가의 해석으로 재현하였다.(도판14) 폴리에틸렌 원료로 질기고 가벼우며 친환경소재인 타이벡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형태를 표현하기 좋은 재료이다. 작가는 직물의 오래된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통해 소재의 고유한 특성을 넘어서 새로운 질감을 얻고자 했다고 말한다. 오래된 직물이 가진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고자 원단에 군데군데 지져서 구멍을 내었고 작품 전면에는 은사와 동사를 장식해 묘족 예복이 보여주는 옛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새 깃털이 달린 예복자락은 원단을 엮어서 술로 만들어 표현하였다.

Ye ryung Cho reinterpreted the beautiful antique Miao costume (figure 13) on tyvek. (figure 14) Tyvek is a new material made of polyethylene. It is durable, light, eco-friendly and easy to express natural and pliable texture. To make the textile look old, and covered with the traces of time, Cho used an unusual technique, as good as creating a new texture - she burned some holes on the material. On the front, she made decorations with silver and bronze threads to represent the beauty of old Miao costume. At the bottom, she hung tassels made of the same material.



도판13 | Fig.13
묘족예복, 중국 귀주성, 20세기 초
Miao costume, Guizhou province, early twentieth century



도판14 | Fig.14
조예령, <More Than>, 2016
Ye ryung Cho, <More Than>, 2016

형태의 차용과 재현

시에나 마르츠는 혼례식 때 목기러기를 감싸는 전안보(도판15)의 끈에 주목하였다. 꽃문양이 화사하게 수놓인 전안보의 끈은 기러기를 두르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가지고 있다. 시에나 마르츠는 사방에 달린 끈을 각각 객체화하고 거대화하였다. 비닐 섬유 면포와 아크릴 실을 사용하여 전안보 끈의 형태와 문양을 차용하였지만 크기를 키우고 술을 극대화하고 색을 추출하여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시에나 마르츠는 <Subo Straps>(도판16) 속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 조화는 음양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며 테피스트리 아래로 늘어뜨린 실의 흐름은 장수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전안보의 끈에 달린 짧은 장식술은 풍성하고 무거운 실의 양감으로 형상화되어 실의 향연을 펼친다.

Threads of Splendor: 千禧織紅窗 卷一

Borrowed and reproduced

Sienna Martz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straps of *bojagi* (figure 15) that covered wooden geese during the wedding ceremony. The *bojagi* was not only functional but also decorative because the straps were embroidered with gorgeous floral patterns. Sienna Martz enlarged straps that were hanging around *bojagi*. Martz borrowed the form and patterns from *bojagi* straps, but used vinyl cotton cloth and acrylic threads, enlarged the size, and colored them. Now, an abstract piece was created. Red and blue of her <Subo Straps> (figure 16) signify the balance of yin and yang, while the long tassels hanging down the tapestries symbolize longevity and eternal love.



도판15 | Fig.15
전안보, 한국 조선시대
bojagi, Joseon dynasty



도판16 | Fig.16
시에나 마르츠, <Subo Straps>, 2016
Sienna Martz, <Subo Strap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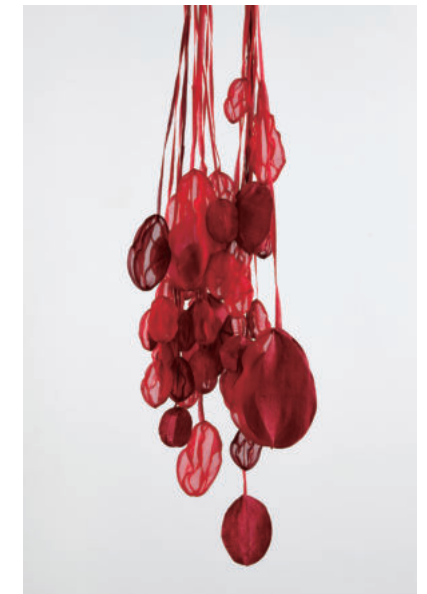
이지선은 몽골의 주머니(도판17) 형태를 취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가는 둥근 형태의 한 쌍의 주머니가 양쪽으로 이어진 몽골주머니의 요소를 따 붉은 실크소재로 입체적 원형의 공간을 가진 오브제를 바느질해 끈의 양 끝으로 이었다.(도판18) 주머니가 물건을 집어넣는 기능성을 가진다면 작가의 작

품은 텅 빈 공간을 가진 오브제로 재탄생된다. 옛 주머니가 그 안에 소중한 무엇을 간직한다면 현재의 붉은 실크로 만든 원형의 공간은 색깔 그 자체로 고귀함, 강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수히 겹쳐지는 붉은 공간들은 <Precious Many>이다.

Jiseon Lee Isbara borrowed the form of Mongolian bags (figure 17) to reproduce her art work. A pair of round Mongolian bags, connected by a strap, is now reproduced as red silk objet with a number of empty circles connected by straps. (figure 18) While the Mongolian bags were used to keep something precious inside, Isbara's objet was reproduced as something with empty spaces. The color alone is enough to represent how precious and strong these empty circles are. And these numerous red spaces are called <Precious Many>.



도판17 | Fig.17
몽골주머니, 몽골 19세기
Mongolian Pouches, 19th century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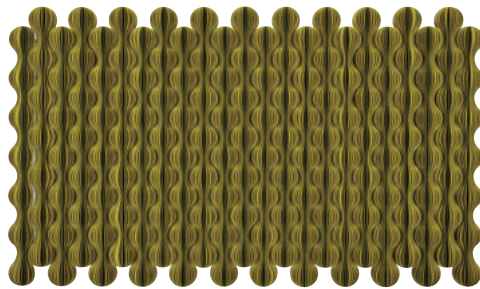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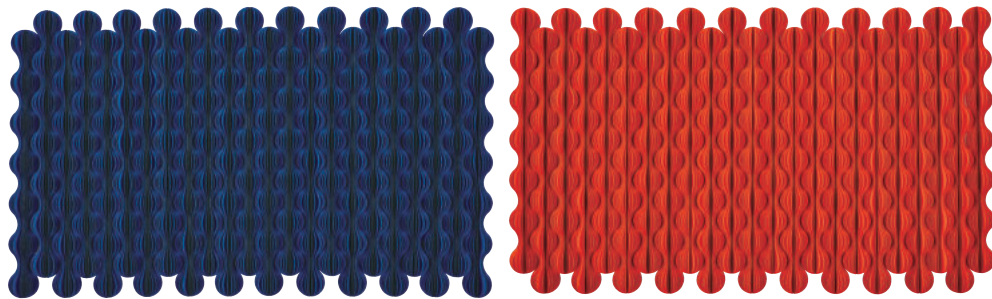
도판18 | Fig.18
이지선, <Precious Many>, 2016
Jiseon Lee Isbara,
<Precious Many>, 2016

조희은은 용포 하단의 물결문(도판19)을 종이를 이용해 강렬하고 부드러운 형상으로 조형해 내었다. 물은 생명의 절대적 요소이며 근원이다. 용포와 흉배의 하단부에 물결문 장식에서 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선형태의 서있는 입수(立水), 반원이 포개진 고요한 물결문인 와수(臥水), 파도 꼭대기에 둥글게 휘말리는 물결인 낭수(浪水) 등으로 나타난다. <흐르다>(도판20)는 이런 변화무쌍한 평면의 물결문을 시선의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입체적인 물결문으로 새롭게 표현하였다.

Hee Eun Cho used paper to reproduce wave patterns at the bottom of *yongpo* (figure 19) in vivid color and soft material. Water is essential for life, and it has been considered source of life. What is interesting, the wave patterns at the bottom of *yongpo* as well as on rank badges are diverse. Some are expressed as diagonal lines or called standing wave (立水), and some are overlapping semi-circles that signify calm and silent wave or called lying wave (臥水). And there are also curled one at the ends of the other waves (浪水). In her <flow> (figure 20) Cho turned these ever-changing waves on a flat surface into dimensional waves that give different looks according to where they are viewed.



도판19 | Fig.19
마름질하기 전 옹포의 물결문, 중국 청대
Wave patterns at the uncut dragon robe, Chinese, Qing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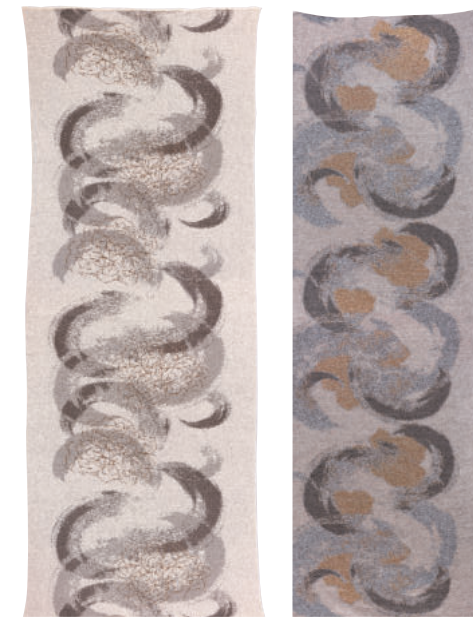


도판20 | Fig.20
조희은, <흐르다>, 2016
Hee Eun Cho, <flow>,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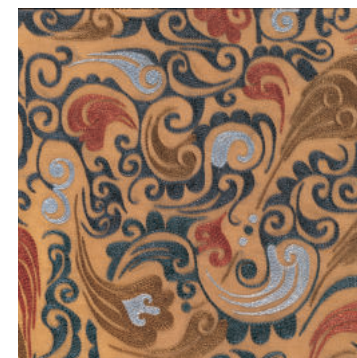
김수연은 문양을 단순하게 추상화하여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모란을 금색으로 편직하였다.(도판21) 작가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연과 밀접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텍스타일 소재로 개발하였다고 말한다. 구름문은 운기문雲氣紋이라고도 하여 만물을 자라게 하는 비의 근원으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름문은 우아한 곡선의 형태로 문양화하기 쉬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사용되는 문양이다. 현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구름문은 연속적인 곡선의 우아함과 사슬수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도판22) 작품의 또 다른 주요 모티브인 모란과 연꽃은 동아시아 섬유 예술에서 흔히 쓰이는 꽃문양이다. 모란은 6세기 말 혹은 7세기 초에 중국 황실의 정원수로 처음 소개되어, 당나라에 와서 널리 재배되기 시작했고 직물과 금속 세공품의 장식 무늬로 유행하게 된다. 모란은 또한 많은 꽃잎이 겹쳐있는 모양 덕분에 부와 영예의 상징이 되기도 하여 부귀화富貴花라 불리기도 하였다. 불교와 함께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진 연꽃 문양은 물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진흙을 뚫고 송고하게 빛나는 하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청렴을 상징한다. 또한 연꽃의 씨주머니 안에는 수많은 씨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연꽃은 종종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사찰에서 쓰인 직물뿐 아니라 여성들의 방을 장식하는

데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최인영은 펠트에 꽃을(도판23) 패턴화하여 프린팅하였다.(도판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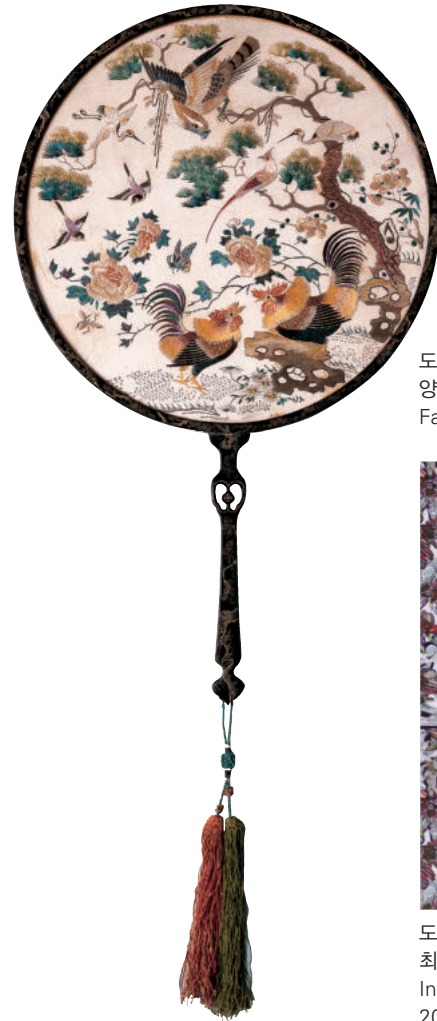
Using gold thread, Soo yeun Kim expressed simplified and abstract forms of clouds and peonies that are blown by the wind. (figure 21) Kim reinterpreted traditional patterns into a modern images. She expressed Korean emotions, Koreans' love for nature, like drawing pictures and used this element in her new textile. The cloud was important in an agrarian society because it brings the rain and the rain is the source of all life. Also, the cloud was favored as a pattern because it has elegant curves and easy to make a pattern. The cloud pattern from the excavated clothes during the Han dynasty shows repetitive elegant curves embroidered with chain stitch. (figure 22) Kim's other motifs are peony and lotus, both are popular floral patterns in East Asian textile arts. Peony was introduced to the Chinese Imperial garden between the late sixth and the early seventh centuries. During the Tang dynasty, peony became more popular and its pattern was also widely used to decorate textiles and metal ornaments. Since peony has many overlapping petals, it wa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wealth and honor. That was why it was also called 'the flower of wealth and honor (富貴花)'. Lotus (figure 23) was introduced along with Buddhism from West Asia and became the symbol of integrity because it grows from deep water, goes through thick mud on the surface and blooms white noble flowers. Furthermore, since the lotus seed bag contains a lot of seeds, lotus was also symbolic of abundance and fertility. For that reason, the pattern of lotus was used not only in textiles of Buddhist temples but also as a motifs that decorated the women's room. In Young Choi printed patterned flowers on felt cloth. (figur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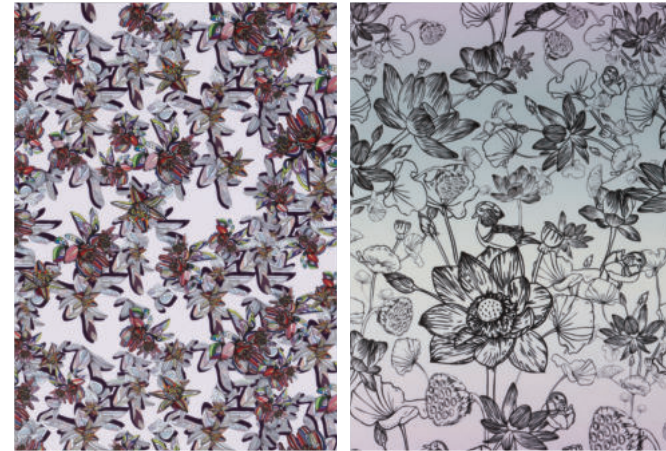
도판21 | Fig.21
김수연, <바람, 구름, 그리고...>
Kim, Soo yeun, <Wind, Cloud, and....> 2016



도판22 | Fig.22
중국 한나라 마왕퇴 발굴 여인복식의 구름문, 중국 한대
Cloud pattern in a woman's dress, Chinese, Han dynasty



도판23 | Fig.23
양면자수부채, 중국 청대
Fan with double-sided embroidery, Chinese, Qing dynasty



도판24 | Fig.24
최인영, <순수한 마음, 건강한 정신, 아늑한 정원>, 2016
In Young Choi, <An unalloyed mind, A bouncing spirits, A snug garden>, 2016

시간을 잇다

민병선은 금사金絲라는 소재에 주목하였다.(도판25) 금사는 금판을 얇게 펴 가늘게 자르는 편금사가 있고 실위에 얇은 금판을 돌돌 말아 만든 연금사가 있다. 금사는 굵어서 천을 뚫고 바느질하거나 수 놓기가 어려워 천위에 금사를 놓고 형태를 잡은 뒤 다른 실로 징겨서 고정시키는 금사징금의 기법을 사용한다. 대개 붉은 실로 금사징금을 한다. 백수문포百壽文袍는 나이가 있는 여성용 겹옷으로 검은 색 공단에 장수를 염원하는 목숨 수壽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사징금한 옷이다.(도판26) 민병선은 백수문포에 나타난 단단한 빛 같은 색감을 금색의 메탈사와 광택이 있는 레이온 및 실크사 등의 실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의 붉은 색감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도판27) 또한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은 끝없는 실의 연장선이며 무수히 쌓여가는 실들을 배열하면서 내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실을 엮었다고 말한다.

Connecting Times

Byung Sun Min paid special attention to gold thread. (figure 25) Gold thread was made in two ways; by

spreading golden plate thin and cutting it thin, or by curling thin golden plate around the thread. Usually, gold thread is so thick that it makes holes on the textile, making sewing and embroidery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gold thread was placed on the fabric and then was use embroidered using crunching stitch with, mostly, red thread. Embroidered coat for older women (百壽文袍) was made by embroidering the Chinese character longevity (壽) in different forms with gold thread using couching stitch on black satin. (figure 26) Min used gold metal thread and glossy rayon or silk to represent the unique color on the coat. Mon expressed her affection for life, in particular, with the red color that comes through his artwork. (figure 27) According to Min, the time behind and ahead of us are the endless extension of thread, and she found the meaning of life and wished for peach at heart while arranging heaps of threads.



도판25 | Fig.25
금사, 중국 20세기
Gold thread, 20th century China



도판26 | Fig.26
백수문포, 중국 청대
Black birthday ceremonial robe embroidered with long life characters, Chinese, Qing dynasty



도판27 | Fig.27
민병선, <5월의 念願>, 2016
Byung Sun Min, <Wishes of May>, 2016

정소윤은 자수 그 자체에 주목을 하면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입는 관복(도판28)과 학교생활을 위해 입은 교복이 유니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작업하였다. 자수를 처음 할 때의 기억은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오버랩 된다. 고등학교 졸업앨범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진을 기억의 정도에 따라 투명도를 다르게 하여 OHP필름에 프린팅하고 교복 재킷의 선이나 넥타이를 따라 기계자수를 놓았다.(도판29) 이 반투명 프린팅 필름들은 작가의 모습으로 설치되어 기억의 편린을 본인의 자화상으로 재구성하였다.

SoYun Jung, whose theme was embroidery itself, noticed that court official's robe in the past (figure 28) was similar to today's school uniform. Bringing back the memory of her first embroidery class in high school, Jung cut out the pictures of her classmates from the year book and printed them on OHP films. Interestingly, the pictures of her friends were all different in the degree of clear and opaque conditions based on their faces left in her memory. She used a sewing machine to embroider along the lines of uniform jackets or ties. (figure 29) In other word, the opaque films are her friends in her memory, reconstructed.



도판28 | Fig.28
보복, 중국 청대
Official's bufu with woven rank badge,
Chinese Qing dynasty



도판29 | Fig.29
정소윤, 〈기억 속 자수 그리고 교복〉, 2016
SoYun Jung, 〈Embroidery class in my memory and school uniforms〉, 2016

홍동희의 〈드러내다〉(도판30)는 가चे加髻(도31)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가체는 머리술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붙여 넣은 머리이다. 『성종실록』에는 사람들이 고계高髻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한 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리를 더하여 얹은머리를 높게 한 것이다. 이러한 머리 사치를 위하여 가산의 탕진은 물론, 시아버지가 나이 어린 며느리의 방에 들어와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다 머리 무게에

눌러 목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작가는 가체가 가지고 있는 엄숙함과 내면에 숨어있는 관능적 욕구를 섬유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무게감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가체는 당시 부의 상징, 미의 상징이자 걸로 유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더 높게 더 풍성하기를 욕망하였다. 폴리노방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 무게감은 위선적일 정도로 가벼운 작품을 통해 가체의 높고 무거운 양감이 가진 허위, 가세를 드러내고 있다.

Dong Hee Hong's <Disclose> (figure 30) drew an inspiration from *gache*, or overly enlarged wig (figure 31). *The Annals of King Seongjong* records that women at the time loved to enlarge their hair so much that they wore excessively big *gache*. According to the annal, many women wasted the family fortune by pouring money into hair decoration. The book also tells a tragic story of a young woman who died of broken neck because of her heavy *gache*. When her father-in-law suddenly came in her room, the young daughter-in-law tried to stand up but her *gache* broke her neck. Hong specially noted that *gache* looks serious and grave but at the same time it was something full of desire. *Gache* at the time was the symbol of wealth and beauty, and it was also a means to reveal the wearer's beauty. Women desired more, and made their *gache* bigger and higher. Hong created her work using polyester silk to express that *gache* looked heavy but was in fact light. It is Hong's intention to reveal the pretensions and hypocrisy of noble women.



도판30 | Fig.30
홍동희, 〈드러내다〉, 2016
Dong Hee Hong, 〈Disclose〉, 2016



도판31 | Fig.31
가체-개수머리
gache(coiled braid hair piece)



시작

Threads of Splendor :

Threads of Splendor: Historical Textiles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소장품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자수공예가들의 보편성을 조명하고 섬유예술의 기술과 양식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대표하는 소장품들은 천 년여에 걸친 동아시아 섬유예술의 역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증거를 이야기해 준다. 박물관 유물을 통해 동아시아 섬유예술가들이 공유했던 장식예술언어의 기원, 의미와 지역적 해석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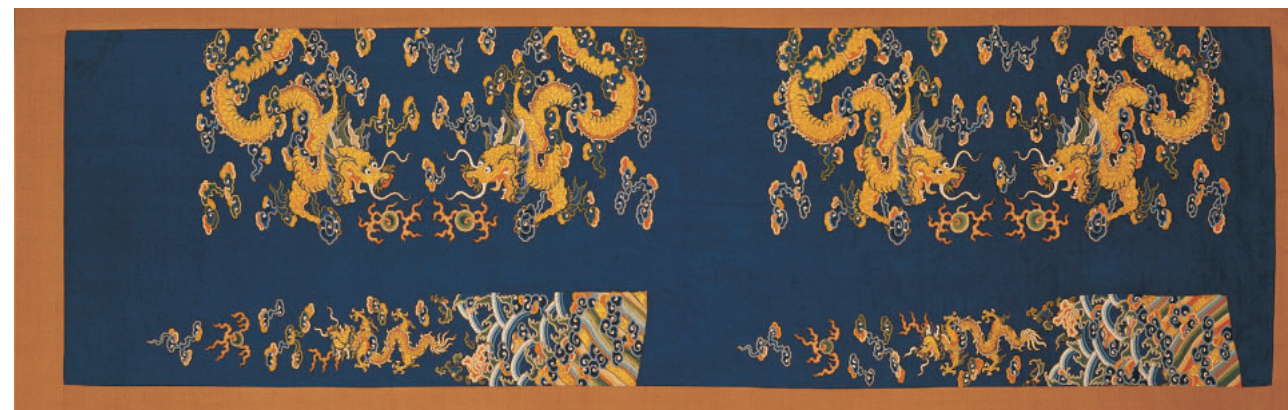
The CEM collection, encompassing the wide geographical scope throughout East Asia, illustrates the universality of the embroiderer's art and highlights international exchanges in technique and style. Masterpieces from various cultures and time periods tell us the millennia-long story of East Asian embroidery and its ongoing relevance in today's world. These exhibitions have outlined the origins, meanings, and regional interpretations of the decorative vocabulary shared by East Asian artists.

01. 황제용포 龍袍
Dragon robe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206cm(W) × 138cm(L)

특정한 색을 특정 방위·요소·계절 등과 연결한 오방색 철학에 의거해 황제와 그 측근들은 천단天壇, 즉 기년전祈年殿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청색을, 일단日壇에 제사 드릴 때는 적색을, 월단月壇에 제사 드릴 때는 밝은 청색을, 그리고 지단地壇에 제사 드릴 때는 황색 옷을 입었다. 파란색 의상은 중국의 농민들이 비를 기원하는 의식인 천단제에서 황제가 입었다.

In accordance with the wuxing(five phase) philosophy, which linked certain colors with particular directions, elements, and seasons, the emperor and his entourage wore blue robes when sacrificing at the Altar of Heaven or the Hall of Annual Prayers, red when at the Altar of Sun, light blue for sacrifices to the moon, and yellow for rituals at the Altar of Earth. The blue color of this robe associates it with the imperial sacrifices at the Altar of Heaven, ceremonies intended to ensure rainfall for the agrarian Chinese.



02. 마름질하기 전 용포 未完成龍袍
Uncut dragon robe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74cm(W) × 244cm(L)

문양판을 이용하여 미세한 붓과 먹 그리고 염료로 직물에 문양을 그렸다. 바탕 문양을 배열하는 데는 숙련된 기술과 시각적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도안된 직물을 자수틀에 팽팽히 잡아매고 뒷면에 풀을 먹여 뽀뽀한 다음 자수를 시작한 뒤, 마름질과 봉제가 시작된다. 용문양은 정교한 금사 징금수로 놓았고, 나머지 구름과 입수문은 치밀한 씨앗수로 놓았다. 씨앗수는 한 땀 한 땀을 세밀하게 바느질하여 배치하고, 각 땀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바늘을 정확하게 고리 짓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용포의 씨앗수 기법은 강한 인내심과 정교함을 요구하고, 빼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The fabric marked in this way then was mounted onto an embroidery frame, and stretched tightly. Starched on the reverse side, the fabric then was embroidered before being cut and sewn. On this robe, the dragon was exquisitely couched with gold thread, while the clouds and the diagonally rising water were embroidered densely in seed stitch. The overall quality of the embroidery demonstrates the unparalleled excellence of the Chinese craftsmanship.



03. 보복 補服
Official's bufu with woven rank badge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175.8cm(W) × 119.8cm(L)

청 태조 누르하치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궁중에서만 관복을 입었으나, 1759년에 제정된 의복 규범에서는 모든 조신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의 가벼운 공식 의복 위에 짙은 파랑이나 검정 관복을 입도록 했다. 보통 앞면과 뒷면에 흉배가 붙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관복을 착용한 사람이 관복 아래 입은 용포의 화려함보다는 그 사람의 계급에 더 눈길이 가도록 했다.

Although bufu (patch garments) were worn at the court of the first Qing emperor, costume regulations issued in 1759 required all courtiers to wear dark blue or black bufu over their brilliantly polychrome semiformal robes. Typically fitted with an insignia badge on the front and back, the bufu focused the viewer's attention on the wearer's rank rather than the opulence of his dragon robe.

04. 하피 霞帔
Woman's court vest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45.5cm(W) × 119.5cm(L)

결혼식이나 중요한 공식 행사 때마다 중국여성들은 용문양이 수놓아진 상의 위에 하피(여자용 조끼)를 입었다. 하피는 대체로 용의 측면 모습이나 입수새문을 바탕으로 입는 사람의 남편의 품계에 맞춘 흉배로 장식을 했다.

For their weddings and the most formal ceremonial occasions, Chinese women wore a sleeveless vest such as this over a dragon patterned jacket (mang ao). The *xiapei* was typically decorated with a profile dragon and lishui, as well as an insignia badge corresponding to her husband's rank.





05. 송학후지산문 우치카케 松鶴富士山紋打掛
Uchikake with cranes, pine trees,
and Mt. Fuji

일본(日本), 에도시대(江戸時代)
 Japanese, Edo period
 131.6cm(W) × 174cm(L)

이 혼례복은 바탕천을 염색하고 천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학의 정수리 같은 세밀한 부분들은 자수로 강조해 표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혼례복 장식으로 결혼할 부부에 대한 길복을 기원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의복 외양이 대부분 자수를 이용하여 상징적인 문양을 표현한 것에 비해, 일본의 직인들은 종종 서로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여 의복의 외양을 장식하였고, 때때로 더욱더 세밀하게 복을 비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The decorative pattern on this wedding robe was largely created by dyeing and painting the ground fabric. Small details, such as the cranes' red crowns, were highlighted with embroidery. Throughout East Asia, textile artists sought to express auspicious wishes for the bridal couple through the ornament of wedding robes. While the entire surface of Chinese and Korean robes is typically covered with an abundance of symbolic patterns created almost entirely in embroidery, Japanese textile artists often combined different methods of surface patterning, and sometimes chose to convey auspicious wishes more subtly.



Threads of Splendor : 千歳萬歳 祝賀



06. 묘족여복 苗族禮服
Miao 'Hundred Bird Coat'

중국(中國), 귀주성(貴州省) 20세기 초
China, Guizhou province, Early 20th century
140cm(W) × 120.4cm(L)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며 깃이 없고 형깊 조각이 덧붙여져 완성된 상의는 조상님을 모시고 숭배하는 묘족의 구장 축제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다. 이 복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입었으며 강렬하게 묘사된 수많은 새와 함께 기하학적 문양과 꽃, 나비 무늬가 함께 수놓아지며, 나비는 묘족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조상을 나타낸다.

This type of elaborately embroidered collarless jacket with attached hanging panels was typically worn during the Guzang Festival, during which the Miao peoples honored and communed with their ancestors. Worn by both men and women, "hundred bird coats" feature numerous, boldly rendered bird motifs and geometric patterns, flowers, and butterflies, the latter representing one of the legendary ancestors of the Miao peoples.

07. 백수문포 百壽紋袍
Black birthday ceremonial robe embroidered with long life characters in couched gold thread

중국(中國), 청대(清代) 19세기
Chinese, Qing dynasty 19th century
150cm(W) × 89cm(L)

백수의百壽衣는 대개 효심 깊은 자손들이 나이든 부모에게 특히 60세 생일에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전면에 '壽'자를 반복한 것이 착용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마법의 힘을 준다고 생각했다.

Bai shou yi (百壽衣, robe of one hundred longevities) like that shown in Catalogue × typically were presented by dutiful children to an elderly parent, especially on the occasion of their sixtieth birthday. The repetition of "long life" characters across the face of the robe was viewed by many Chinese as imparting a magical power that extended the life of the wearer.



Threads of Splendor: 千禧藏紅宮 卷一



08. 양면자수부채 兩面刺繡扇
Fan with double-sided embroidery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26.8cm(D)

동근 부채의 앞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꽃이 바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표현돼 있는데 양면의 모양이 같도록 세심하게 작업 되어 있다.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작업은 청 말기 중국 도심지역의 대규모 상업 자수 공방에서 행해졌다.

The head of this round fan, featuring various kinds of birds and flowers with a rock and pine tree, is carefully stitched so that the same composition appears on both sides. This kind of painstaking workmanship is associated with large commercial embroidery workshops in Chinese urban centers during the late Qing.

09. 전안보 奠雁褙
Wrapping cloth, for wrapping the wooden wild goose used during wedding ceremony

한국(韓國), 조선시대(朝鮮時代)
 Korea, Joseon dynasty
 50.1cm(W) × 51.5cm(L)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전안보는 혼례시 신랑 편에서 가지고 가는 기러기를 싸는 보자기이다.
 Jeonanbo refers to the cloth that wraps wooden geese that bridegrooms carried to the brides.



10. 열쇠패
Key holder

한국(韓國), 조선시대(朝鮮時代)
Korea, Joseon dynasty
59.9cm(L)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열쇠패는 딸이 결혼할 때 주는 것으로 장식적인 용도로 쓰였으며 실용보다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강하다. 열쇠패 맨 위에 연밥을 쪄는 새를 장식하고 술에는 괴불, 새, 고추, 연밥, 가지 등을 꾸며 다산을 기원하였다.

Key holders had the meaning of removing evils rather than practical use. Given when a daughter marries, it was used as a decoration. At the top of the holder are embellished with birds picking lotus flowers. The tassels are decorated with birds, pepper, lotus flowers and eggplants, wishing for fertility.



11. 일품문관선학홍배 一品文官仙鶴補子
First rank civil official's rank badge with crane

중국(中國), 명대(明代)
Chinese, Ming dynasty
35.6cm(W) x 33.8cm(L)

명나라 홍배의 대부분은 직조인 반면, 이 홍배는 자수로 된 흔치 않은 홍배 중 하나이다. 학이 크게 그려져 홍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안은 명 왕조 내내 인기를 끌었다.

Whereas the majority of Ming insignia were woven in kesi(silk tapestry) or brocade, this badge provides a rare example of an embroidered Ming rank insignia. The design of this rank badge, with the birds rendered in a large scale and dominating the composition, remained popular throughout the Ming.

Threads of Splendor : 千禧紅紅紅 卷一



12. 주머니 荷包
Pouches

몽골(蒙古), 19세기
Mongolian, 19th century
12.8cm(W) × 32.5cm(L)

주머니는 전통 복식에 없는 호주머니 역할을 하던 것이다. 이 몽골 주머니는 두 개의 주머니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꽃과 구름, 수壽자 등으로 장식하였다.

These Mongolian bags served as pockets since Mongolian traditional clothes do not have a pocket. The two bags, connected by a strap, are decorated with embroidered patterns of flower, cloud, the character (longevity) and others.

13. 자수수자문 刺繡壽字文
Covering embroidered with long life(壽)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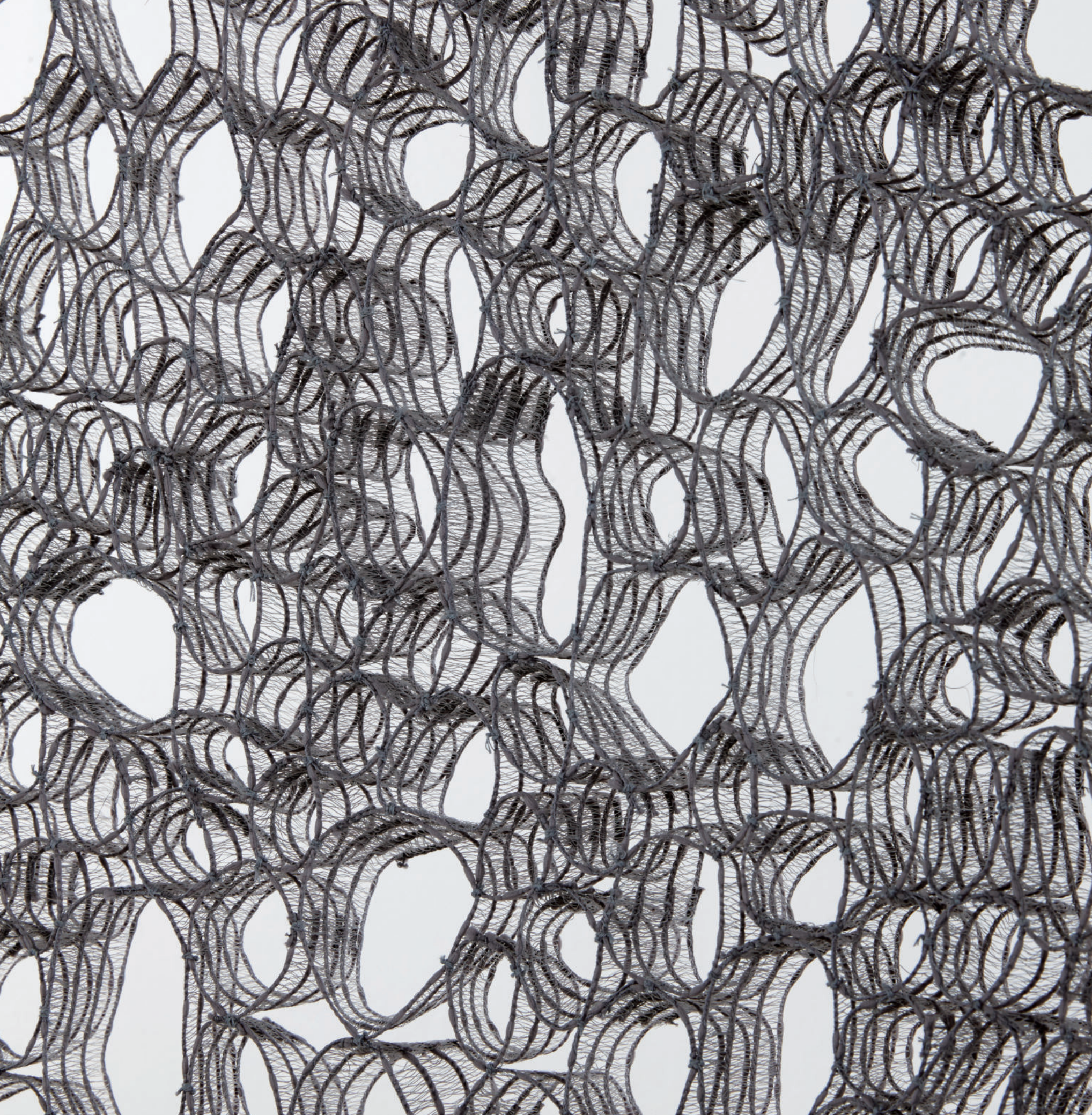
중국(中國), 청대(清代)
Chinese, Qing dynasty
48.8cm(W) × 65.3cm(L)

정교하게 자수된 덮개는 자련수, 평수, 이음수 등으로 학과 모란 같은 상징문양을 활용하여 수壽자를 구성함으로써 장수에 대한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장수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는 학은 여성을 상징하는 모란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붉은색 바탕천에 수놓아져, 특히 여성의 생일잔치와 같은 즐거운 축제 자리에 어울린다.

This exquisitely embroidered covering expresses abundant wishes for long life by depicting the Chinese character for long life -shou(壽)- composed of symbolic patterns such as cranes and peonies rendered in long and short, satin, stem, and irregular-length satin stitches. The cranes, widely recognized symbols of longevity, together with luxuriant peony flowers, a motif associated with women, all on a ground fabric of bright red, a color representing happiness and joy, would have rendered this piece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presentation to a woman on her birthday.



Threads of Splendor: 千紫萬紅·彩
나



지 금

Threads of Splendor:

Threads of Splendor: Modern Design

이 전시는 현대 섬유예술가들이 동시대의 시간성, 장소성, 미학을 반영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기 위해, 과거의 기술, 생각, 오브제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다룬다.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인 연계를 통해 박물관의 텍스타일은 학자, 미술가, 디자이너, 대중들에게 살아있는 소장품, 소중한 교육자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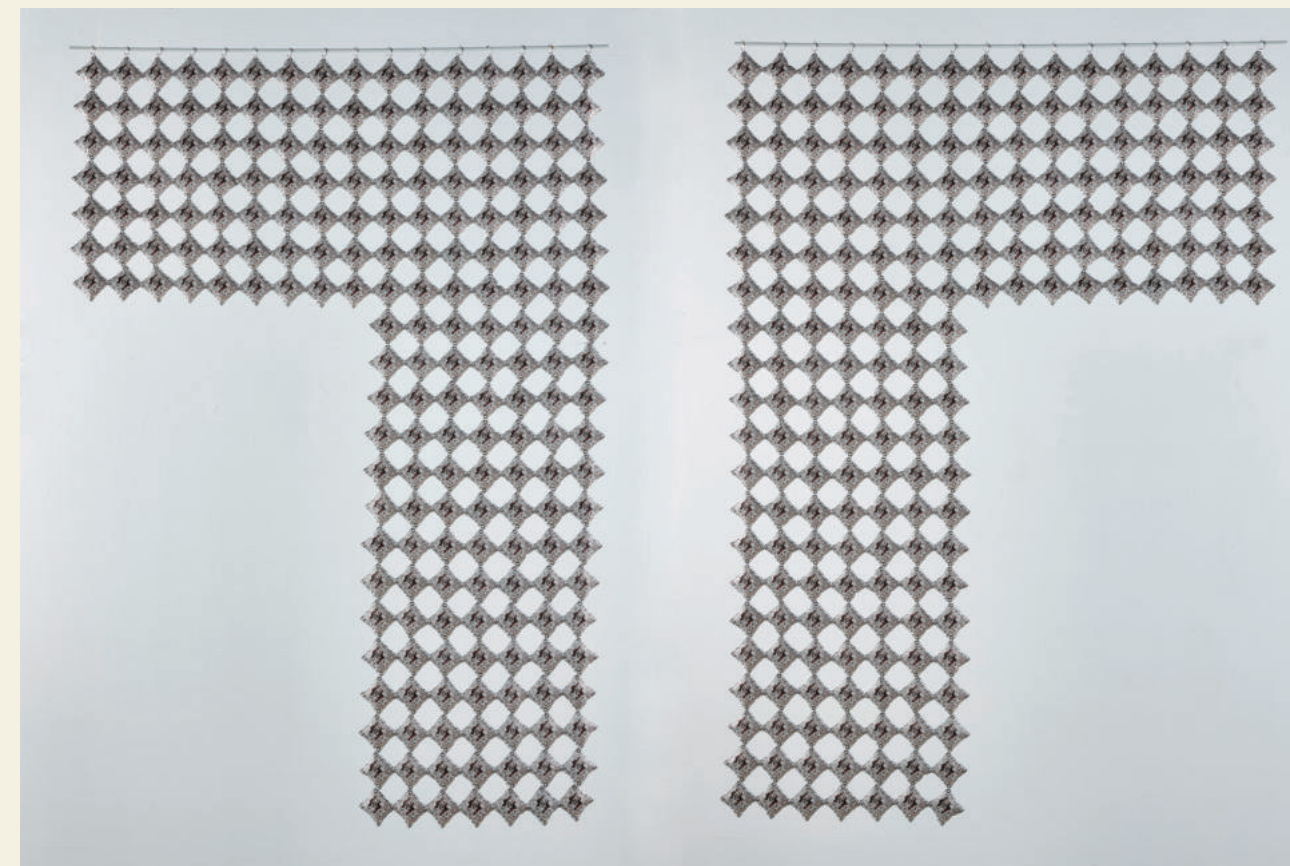
The exhibition reveals the ways that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can look to the techniques, ideas, and objects of the past to create new expressions that speak to their own time, place, and aesthetic. Link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CEM's historical textiles will serve as a valuable collection, educational resource as well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scholars, artists, designers and the general public.

11
일품문관선학홍배 一品文官仙鶴補子



현대 섬유미술의 셀 패턴의 작품 형태와 표현 방법에 중점을 두었고, 작품의 소재로 쓰인 전통문양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변형하여 발전시킴으로서 하나의 작은 모티브에 담아 그 모티브를 반복, 확장시켜 셀 패턴의 형식으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하나하나의 모티브는(형태적인 측면) 세포조직의 생장구조와 확산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섬유미술의 내부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으로 확산되는 공간연출로 전개했다. 미세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여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듯이 정해진 공간에서만 표현되었던 작가들의 표현 영역을 더 확대해 가는 것이다. 세포의 조직에서 시작되고 그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여 결국 같은 DNA를 가진 모티브가 만들어졌다. - 작가노트

I paid special attention to cell patterns of contemporary textile arts and the expression method I employed. First, I simplified the images of traditional patterns into modern images, and inserted them in a small motif. Then by repeating and expanding this practice, I created a cell-pattern artwork. Each motif was expanded not only within the space of contemporary textile arts but also beyond the space. It is like a cell that grows, multiplies and spreads. Just as a tiny cell divides itself and fills its assigned space, I believe expressions of artists spread beyond the assigned space. Something that started from a small cell now grew, divided, and finally created a motif that has the same DNA with the original small cell. - from the artist's note



cell201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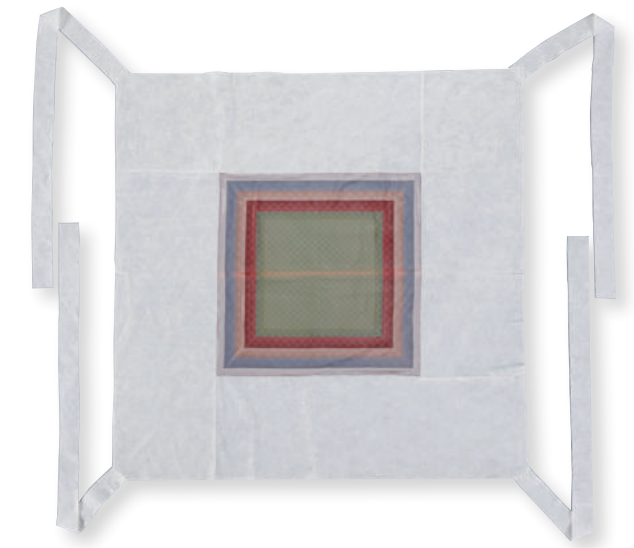
Felt, Metal
277cm(W) × 206cm(L)

13
자수수자문 刺繡壽字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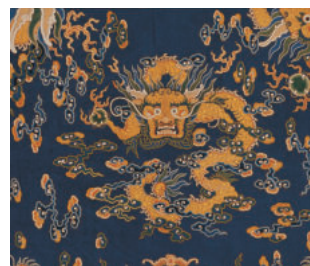
귀중하고 유려한 멋이 살아있는 유물들이 전시관 안에서 일어나고, 디지털 이미지화되어 평면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물은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이지만 새롭게 창조된 유물의 이미지는 얼마든지 재생산될 수 있으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작품에서는 조각보라는 전통의 기법과 현대의 프린트 기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우리의 정서와 감상에 일치할 수 있도록 실크와 한지를 사용하였다. - 작가노트

In my work, precious and elegant historical objects from the exhibition room have become digitally converted to images on a flat surface. A historical object is one of a kind, but its new images can be reproduced as many times as possible. They can also be used in our daily lives. I used the traditional method of patchwork as well as modern printing technique. Silk and *hanji* were used to appeal to our national emotions. - from the artist's note



확장 I, II, III
Expansion I, II, III
Silk, Korean paper
136cm(W) × 136cm(L)
끈포함 386cm(W) × 386cm(L)

02
마름질하기 전 용포 未完成龍袍



나는 용포에 나타난 자수를 현대 디자이너인 G-Star Jumpsuit에 새롭게 옮겨 패션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해 보고 싶었다. 자수란 장식, 즉 옷을 장식하는 작업이다. 특히 수작업 자수는 옷을 입는 사람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기능을 감당해 왔다. 이는 부유하거나 중요한 인물일 경우 말 그대로 시간을 들여 수공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나는 직접 세심하고 꼼꼼한 수작업을 하여 패티시 의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 작가노트

I decided to translate embroidery on an emperor's robe into a contemporary designer G-Star Jumpsuit in order to bring up questions on fashion. Embroidery is the practice of ornament: to decorate one's clothing. And hand embroidery has functioned as a signifier of wealth and status of someone since one is so important or wealthy that they can literally display hours of hand labor. In response to these ideas, I decided to create a fetished garment with hours of my meticulous hand labor. - from the artist's note



Emperor's Robe to
G-Star Jumpsuit
Denim
60cm(W) x 150cm(L)

04
하피 霞披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함, 따뜻한, 유연함, 단단함 등의 자연적인 특성들을 혼합하여 기하학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각각의 형태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적인 작품과 오브제로써의 장신구로 완성한다. 획일화된 우리 삶의 구조와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서정적 감성의 공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기하학적 구조들의 집합 또한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구조들로 비추어지길 의도하고 있다. - 작가노트

I mixed simple, warm, soft, hard and other natural feels in materials to repeatedly build geometrical structures and connect them one another to create a poetic work and an accessory of objet d'art. I wanted to show that our homogeneous and standardized life in fact coexist with emotional sensitivity of the nature. Furthermore, I wanted to express even geometrical pieces are part of organic and natural works. - from the artist'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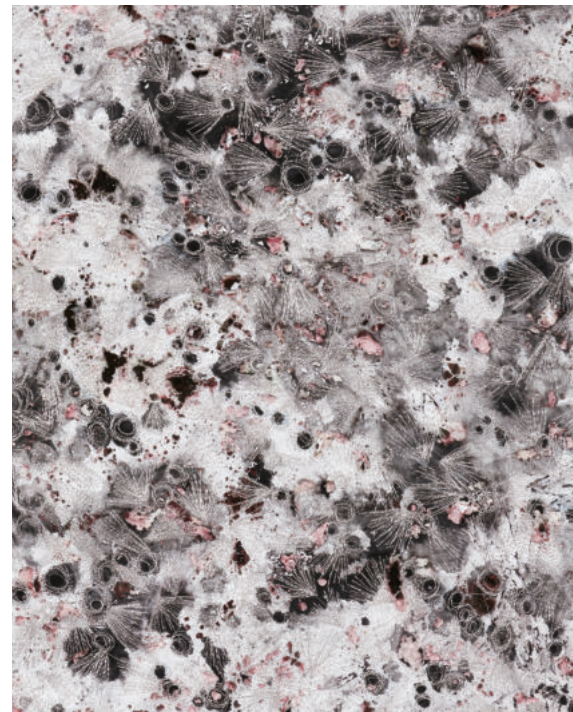
Tube Series
Polyester
103cm(W) × 141cm(L)

06
묘족예복 苗族禮服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직물은 역사의 풍파를 다 견뎌낸 고단함과 노련함이 느껴진다. 이런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직물의 느낌을 새로운 신소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친환경소재인 타이벡은 자연스럽게 유연한 형태를 표현하기 좋은 재료이다. 가장 중요한 직물의 오래된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표현방법을 통해 소재의 고유한 특성을 넘어서 새로운 질감을 얻고자 한다. - 작가노트

After passing through turbulent times, textiles become weary and used, but at the same time they look skilled and experienced. That looks and feels are what I wanted to express on the new material, Tyvek. On this new and eco-friendly material, it was easy to make natural and subtle expressions. To express traces of time on the textile, I tried a unique method which was so innovative that it was as good as making a new material. - from the artist'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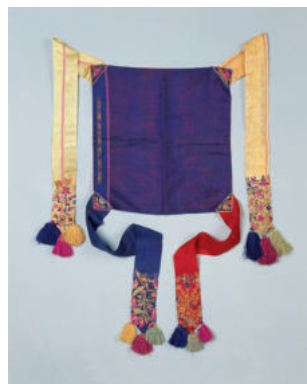


Threads of Splendor : 千縷紅塵 卷一



More Than
Polyethylene, Tyvek
140cm(W) x 118cm(L)

09
전안보 奠雁褙



Subo Straps
Yarn, Vinyl Scrim, Acrylic Paint
45.7cm(W) x 182.9cm(L)



보자기는 오늘날 한국 전통 직물예술에서 특별한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았다. 보자기가 이렇게 현대화된 것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칼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계층에 관계없이 한국 문화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던 보자기는, 아름다움(beauty), 공예(craft) 그리고 기능성(functionality)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균형감 있게 잘 갖추어 왔다. 조선시대(1392 - 1920)는 엄격한 유교사회였고, 여성의 교육이나 지적 활동을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들은 함께 모여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보자기는 여성 수공예자들이 창의력을 표현하거나

가까운 이들에 대한 바램을 표출하는 통로였다. 나는 보자기, 특히 보자기 네 귀퉁이에 달린 끈에 수놓아진 자수장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나는 한국 자수예술의 복잡한 무늬가 여기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디테일을 강조하며 실제보다 큰 보자기 자수를 재현해 내었다. 이미지와 다색사용을 배제하여 더욱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 작가노트

Threads of Splendor: 千禧紅線 卷一

In modern years, the *Bojagi* wrapping cloth has become perhaps the most unique form of Korean textile art. It has become strikingly contemporary through the use of design and color. Through its prominent place within the daily lives of Korean culture within all classes; it has created a unified relationship of beauty, craft, and functional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 - 1920) a time when strict Confucian society denied women to intellectual pursuits and education, women gathered to sew and connect with each other. The *Bojagi* was a way for female artisans to express their creativity and deepest desires for their loved

ones. Inspired by the historic *Bojagi* at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Sienna Martz pulled specific inspiration from the embroidered decorations confined to the tie attached to the four corners. These compositions beautifully represent the intricacy of embroidery art within the Korean culture. Highlighting these details, Martz created larger than life representations of the *Bojagi* stitch work. Martz isolated the imagery and stripped the composition of multiple colors to create a more abstracted representation. - from the artist's note

12
주머니 荷包



이 몽골 주머니는 모양이 조정될 수 있고, 인간의 복부와 신기하기도 많이 닮았다. 마치 착용자의 신체의 일부처럼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 사용된 붉은 견직물은 귀중하고, 대담하며, 본능적이다. 작가는 정성스러운 바느질을 통해 여러 개의 내장된 하지만 신비하게도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는 없는 주머니를 만들어 냈다. 모양은 입체적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주머니들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강조해 보여준다. 넣어보려 해도 부질없는 시도일 뿐이다. - 작가노트

A pouch as a flexible receptacle, oddly resembling abdominal body parts, serves as a bodily extension of the wearer, granting significance to him/her and its contents. Red silk fabric is simultaneously precious, bold, and visceral, carefully stitched together to form numerous enclosed and mysteriously inaccessible pouches. The pouch's full yet empty compartments highlight its lack of content; attempts at entry are in vain. - from the artist'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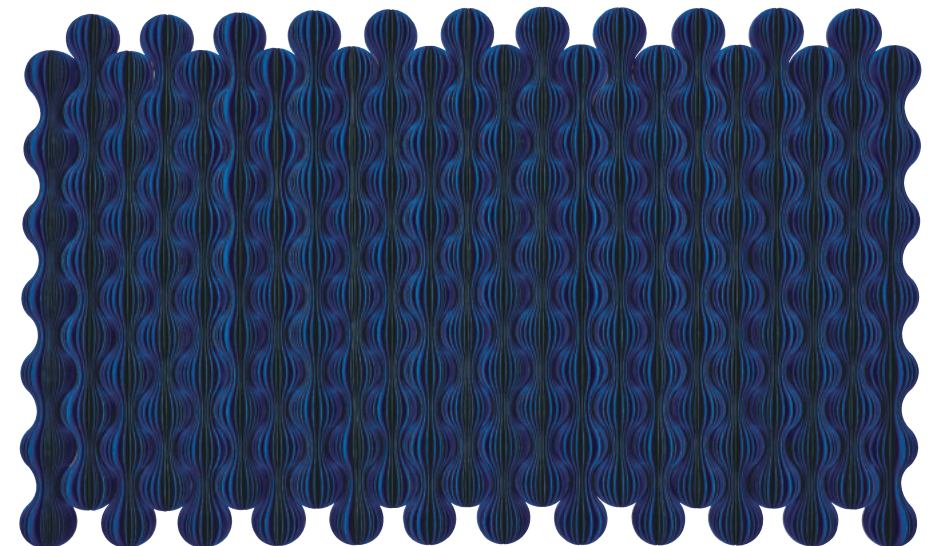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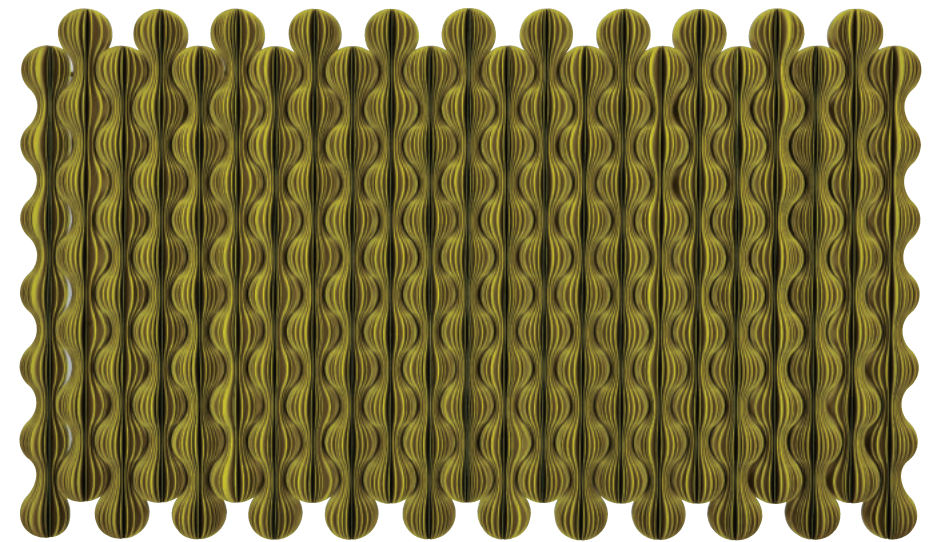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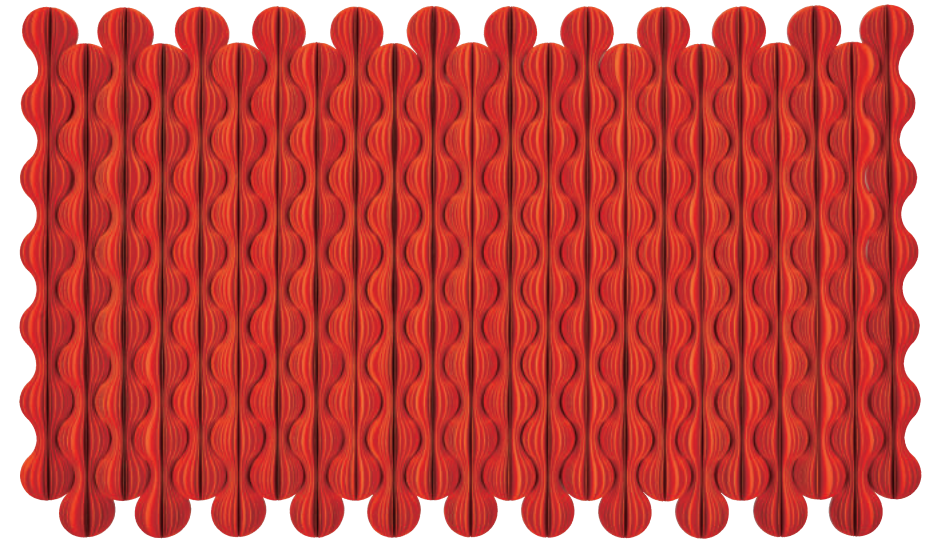
Precious Many
Silk fabric, Steel wire
Dyed, Hand Stitched
30cm(W) x 20cm(D) x 114cm(H)

01
황제용포 龍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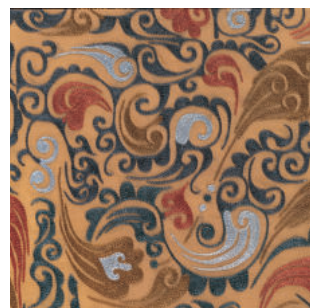
물은 생명력과 정확력, 부정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맑음, 깨끗함, 변화, 순리, 너그러움 등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결문양은 통치하는 나라의 산하를 뜻하여 용포의 하단부, 홍배의 하단부에 관례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물결문양은 세상의 물과 바다를 상징하며 반원들이 포개진 문양은 바다의 파도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물결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식화된 물결문양을 표현하고자 한다. 동일한 물결 모양을 중심축 기준으로 반복·회전하여 규칙적인 리듬감을 구현하고 시각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반복은 울동감, 입체감, 공간감 표현이 가능하다. - 작가노트

Water has many functions; it is the source of all life, it purifies, and it washes away dirt. Water is symbolic of "clean and clear", "change", "following the flow", and "generosity". The wave patterns, traditionally signifying mountains and streams, were embroidered at the bottom of *yongpo* (royal ceremonial robe) as well as on rank badges of court officials. Another meaning of wave patterns was waters and seas of the world, and overlapped semicircles were symbolic of the sea waves. I wanted to reinterpret these traditional wave patterns by expressing them in graphic forms. In my work, rotating wave patterns at the center were designed to give a sense of rhythm, dimensional effect and spatial sense. - from the artist'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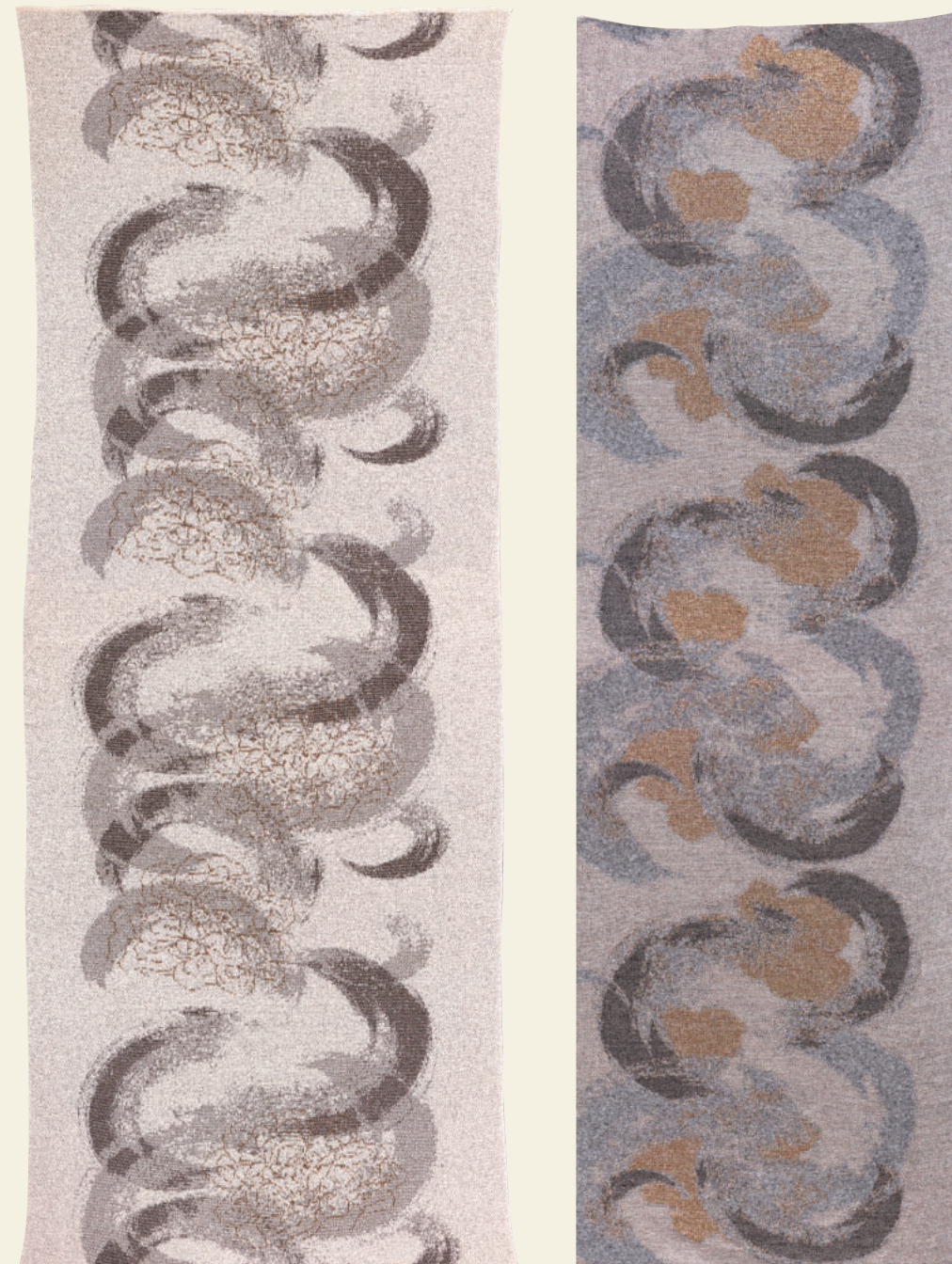
흐르다
flow
Paper
250cm(W) x 58cm(L)

중국 한나라 마왕퇴 발굴
여인복식의 구름문, 중국 한대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양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보편적 특성과 함께 민족적 성격이 부여된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전통문양이 담고 있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에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독창성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여러 민족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 문양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조형미를 현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인 활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작가노트

Within a cultural boundary, patterns that represent a country, its images or identity, contain both universality and distinctive nat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sense, I believe that symbols of our traditional patterns applied to commercial products will bring Korea an opportunity to boast its cultural uniqueness on the global stage, and many countries in the same cultural boundary would sympathize with us. This will lead to continued development of higher value-added cultural products. Considering that Korean traditional patterns create modern beauty based on national aesthetic sense, I believe the traditional patterns will go very well with modern designs and these patterns will be utilized in countless ways. - from the artist's note



Threads of Splendor : 千紫萬紅을 잇다

바람. 구름. 그리고....
Wind, Cloud, and....
투명사, 메탈사, 모사 / 자카드 니트
Jacquard Knit
72cm(W) × 226cm(L) / 72cm(W) × 214cm(L)

08 양면자수부채 兩面刺繡扇



민화 속 화조도 '희로애락'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부귀와 출세', '행복', '장수', '다산'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지닌 소재를 모란, 연꽃, 국화, 석류, 물총새, 원앙 등의 꽃과 새로써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했다.

또한 전통 화조도의 이미지를 벗어나 현대 트렌드에 맞게 보편화 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문양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과거 전통 요소인 민화 속 화조도를 연구자의 희망차고 긍정적인 감성으로 접목시켜 현대의 대중들도 선호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 작가노트

Based on the symbols of shown in the bird-and-flower folk paintings, I matched concepts of riches and honors, happiness, longevity, and fertilities with designs of birds and flowers such as peony, lotus, chrysanthemum, pomegranate, kingfisher and mandarin ducks. It was a new approach from a modern perspective. Moving from the traditional images in bird-and-flower paintings, I advanced to practical and decorative patterns in modern and trendy textile designs. In other word, I borrowed elements of traditional folk paintings to create modern textile designs that appeal to the people in the modern world. - from the artist's note



순수한 마음, 건강한 정신, 아늑한 정원
An unalloyed mind, A bouncing spirits, A snug garden
 DTP, Polyester
 51cm(W) × 37cm(L)
 34~38cm(W) × 35.5~43cm(L)

07
백수문포 百壽紋袍



백수문포에 나타난 단단한 빛 같은 색감을 금색의 메탈사와 광택이 있는 레이온 및 실크사 등의 실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의 붉은 색감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살아 온 시간과 살아 갈 시간은 끝없는 실의 연장선이며 무수히 쌓여가는 실들을 배열하면서 내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따스한 오월 한 올 한 올 실을 올리며 바느질과 미싱질을 통해 실을 엮어 인생의 기쁨과 행복한 마음의 향을 느껴본다. - 작가노트

I used threads of gold metal, glossy rayon and silk, especially with red color in the middle, to express my affection for life. The days behind and ahead of us are like endless thread. While I was working heaps of threads, I would give new meanings to life and wished for peace. I was stitching on a bright spring day in May, and I came to appreciate each strand of thread because I found peace and felt happy with my life. - from the artist's note



5월의 念願
Wishes of May
Polyvinyl Alcohol, Different kinds of yarn
130cm(W) × 90cm(L)

03
보복 補服



작업은 기억 속 내재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자수라는 타이틀과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복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였다.(기존 작업에서 기계자수를 주로 사용하였기에 '자수'라는 단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우선 내 기억 속 자수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더듬어보는 과정에서 학창시절 서투른 솜씨로 손 자수를 해내던 한 수업시간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관직에서 입었던 관복과 우리가 입었던 교복은 둘 다 제복으로 그 용도가 같지 않은가.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정도에 따라 불투명도를 다르게 하여 투명한 OHP 필름에 프린트를 하여 표현했고, 친구들의 얼굴보다는 교복에 기계자수를 더하여 학창시절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마치 관복에 달린 흉배가 그 아름다움과 계급,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주었듯이 말이다. - 작가노트

To create an art work is to express emotions in one's memory. I started to work on my piece with the inspiration I drew from the court officials' uniforms in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I usually work with a sewing machine. But this time, I was attracted by the word "embroidery." Memories of embroidery came flooding back, and in my memory I came across my high school days when I was embroidering with poor hand skills. And suddenly I realized that court official's robes and school uniforms have something in common. Unfortunately, my memory blurred when I tried to remember some of my classmates. So I applied opaque prints on OHP films to express my vague memories. Also, I gave more machine stitches on the school uniforms than on the friends' faces, thinking of the rank badge on an official's robe which represented the wearer's rank as well as served as wonderful decorations. - from the artist's note



기억 속 자수 그리고 교복
Embroidery in my memory and school uniform
Print on OHP film, Machine stitch
70cm(W) × 110cm(L) × 50cm(D)

Hong, Dong Hee

가체-개수머리



여성들은 가체로 본인의 머리 형태를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신체 중에서 머리만큼 세속적인 것이 있을까. 가체에 장식품으로 더해진 펄잡과 뒤꽂이는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아름다움까지 주어 여성의 관능미를 극대화 시킨다. - 작가노트

Korean women in Joseon period wore *gache*, or coiled braid hair piece to make their hair look much bigger than it really was. What were their intentions? What were their desires? For what, and to whom did they want to appeal themselves? I wonder if there is any other part in a woman that is more 'secular' than her hair. Decorative ornaments attached to *gache* must have swung whenever the wearer moved. I think *gache* was something that maximized Korean women's charms. - from the artist's note



Threads of Splendor : 千禧紅紅紅 紗

드러내다

Disclose

폴리 노방, 메탈파우더
인터록(interlock), 스모킹(smoking)
50cm(W) x 100cm(L)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지역의 아티스트 프로젝트
 멕시코의 섬유 예술가들과 함께 한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위
 통해 동아시아의 자수 예술을 소개하고 현지의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영감을 받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섬유 작가 한아람이 진
 행한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에 위치한 Centro de Textiles del Mundo Maya 박물관과 연계하여
 치아파스 각 지역의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지역의 전통장인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한아람 작가와 멕시코 전통장인들 | Aram Han and Mexico Artisans

멕시코에서 변용된 동아시아 섬유예술

Embroidery in Translation Project: Collaboration with Indigenous Chiapanecan Artisans Reinterpreting Traditional Korean Textiles

멕시코의 섬유 예술가들과 함께 한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수 예술을 소개하고 현지의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물에 영감을 받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섬유 작가 한아람이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에 위치한 Centro de Textiles del Mundo Maya 박물관과 연계하여 치아파스 각 지역의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이 제공한 도록과 고해상도 유물 이미지를 통해 동아시아 자수의 예술성을 이해하고 자수 기법 등을 함께 연구하여 멕시코의 전통 섬유제작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6개의 그룹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총 7점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그 중 6점이 이번 전시에 소개되었다. 멕시코에서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 의상에 수놓은 구름과 용 등의 모티프는 새로운 시도이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치아파스 장인 마사 루이즈 로페즈의 작품은 조선시대 쌍학흉배에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흉배를 그대로 재현하였으나 사용한 재료와 색상은 멕시코 현지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선명한 분홍색과 다홍색, 파란색, 보라색 등으로 표현한 구름과 물결은 멕시코 전통의상에 사용된 색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검은색으로 표현한 한 쌍의 학이다. 멕시코에서는 검은색의 새가 힘을 상징한다. 착용하는 자의 힘, 즉 계급을 상징하는 흉배의 의미를 현지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마리아 조세피나 고메즈와 마리아 드 지저스 고메즈의 작품은 청대 운견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운견은 중국 황실 의상의 제례용 것이다. 본래 만주족 무관들만 착용하였으나 18세기에 와서는 궁중 예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 작품은 멕시코 전통의상인 위펠 위에 운견의 문양들을 배치하여 수놓았다. 위펠의 깃 부분에 문양을 수놓은 것은 운견을 예복의 깃으로 착용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번 프로젝트는 워크숍을 통해 유물의 쓰임과 문양의 상징 등을 이해하고 현지의 전통과 결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Mexican textile artist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hese artists joined the CEM workshop and learned about East Asian embroidery arts, and then they created art works using their local materials and techniques with the inspiration they drew from the museum's historical textiles. Aram Han, a textile artist based in the US conducted this project in partnership with Centro de Textiles del Mundo Maya located in San Cristobal de las Casas, Chiapas. Renowned artisans from regions of Chiapa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hrough CEM's catalogues and high resolution images of collection objects, the Mexican artists understood the artistic qualities of East Asian embroidery and learned key stitch techniques. Then they finally completed art pieces using the traditional Mexican textile skills. Six groups joined in this project, and produced seven work pieces, and six of them will be on display in the exhibitio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such as cloud and dragon were a new and meaningful attempt for these Mexican artisans because they mostly use geometric patterns in Mexico. A Chiapas artisan Martha Louise Lopez created a piece of work inspired by the rank badge with a pair of cranes embroidered on it. By and large, it is a representation of a Joseon rank badge, but Lopez used traditional Mexican materials and colors. For example, vivid colors of pink, crimson, blue and purple expressed in clouds and waves are of the same colors which are also found in Mexican traditional clothes. What is unusual, the cranes are colored in black, because in Mexico a black bird signifies power. The artisan, in a sense, reinterpreted the function of rank badge, the symbol of an official's rank, and expressed it in the local sense. Maria Josephina Gomez and Maria de Jesus Gomez created a piece inspired by ungyeon, a women's cape for Imperial rituals during the Qing dynasty. Originally, it was only for Manchurian military officials, but by the 18th century it became an essential part of court robes. The artists embroidered the patterns from ungyeon on a Mexican traditional coat. Considering that the artists made embroideries on the cape, it is evident these artisans understood that ungyeon was for a ritual. The project is meaningful in that the Mexican artists understood the use and symbolism of patterns thanks to the CEM workshop, and that the local traditions of Mexico combined with the Korean traditional textile arts.



Susana Maria Gomez Gonzalez (from Zinacantan)
71cm(W) x 60cm(L)



Martha Ruiz Lopez (from San Juan Chamula)
60cm(W) x 60cm(L)



Rosa Margarita Enriquez Bolom (from Huixtan)
57cm(W) x 72cm(L)



Margarita, Aurelia, Mari, Paxcu Gabi, Martha, Maria and Esther from
Collective El Gato Con Los Pies De Trapo
10cm(W) x 26cm(L)



Maria de Jesus and Maria Josefina Gomez K'ulub
(from Oxchuc)
60cm(W) x 56cm(L)



Juana Victoria Hernandez Gomez's (San Juan Cancuc)
58cm(W) x 60cm(L)

김수연 Kim, Soo yeun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섬유전공으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 미술학과 박사를 졸업하고 미국의 School of Philadelphia University에서 Textile Design을 전공하였다. 숙명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이음 대표이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공예대전, 일본중부염색작가전 아사히신문사상, ITMA 버지니아잭슨 디자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민병선 Min, Byung Sun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와 동대학원 염직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섬유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하였다. 성신여자대학 공예과 섬유전공 겸임교수로 라이프 랩 디자인 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디자인대전, 한국공예가협회 협회상, LIFE IS GOOD FASHION & ACCESSORIES 국제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선다혜 Sun, Dahea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Textile Tutures로 석사를 하였다.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박사를 수료하고 동대학에서 출강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국내외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였고, 서울, 런던, 파리, 브뤼셀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시에나 마르츠 Sienna Martz

미국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드로잉을 전공한 뒤, Temple University, Tyler School of Art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City Hall Art Gallery에서 <"Collar," Eco+Fashion Exhibition>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주로 설치미술, soft sculptures 그리고 의복작품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이수연 Lee, Sooyeon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와 동대학원 섬유전공 석사를 졸업하였다. 다수의 뮤지컬과 연극 등에서 의상디자인 및 제작을 하였으며 2015년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에 입선하였다. 현재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 재학 중이다.

Soo yeun Kim earned her BFA, MFA and PhD in Crafts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n she studied Textile Desgin at Philadelphia University. Kim is currently CEO of Studio iium, and a lecture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Duksung Women’s University. S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won prizes in the Korea Handcrafts Award Competition, in the Japanese dyeing artists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Asahi Weekly, and ITMA Virginia Jackson Design Awards competition.

Byung Sun Min received her BFA in Craft and a MFA in Fabric-dyeing, and completed her PhD courses in Textiles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djunct professor of Textiles in the department of Craft at Sungshhin Women’s University. She won prizes at design competitions organized by the Korean Crafts Council, and Life Is Good Fashing & Accessories International, among others, and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Dahea Sun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majoring in textile arts and fashion design. Sun received her master’s degree at the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After completing her PhD coursework in Textile Art at Hongik University, Sun is currently teaching students at Hongik University. She has received a number of design awards in Germany, United Kingdom, Italy and Korea, and also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 Seoul, London, Paris, Brussels, and other major cities.

Sienna Martz studied drawing a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nd received her BSF degree from the Tyler School of Art at Temple University. S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exhibitions including <"Collar," Eco+Fashion Exhibition> at the City Hall Art Gallery. Her interest fields include installations, soft sculptures and fiber arts.

Sooyeon Lee earned her BFA and MFA in Fiber Art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Lee designed stage costumes for a number of musicals and plays, and her art works were accepted for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in 2015. Currently, Lee is studying at the Royal College of Art in the United Kingdom.

이지선 Jiseon Lee Isbara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전공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Colorado State University에서 섬유전공을 하였다. 한국, 유럽, 미국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Oregon College of Art and Craft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Colorado State University, The Figge Art Museum 등의 초대전을 비롯하여 한국, 미국 등에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정소윤 Jung, SoYun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섬유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 50회 산미전국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이화여대 Expert class 전시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제50회 산미전국공모전 전시에 참여하였다.

조예령 Cho, Ye ryung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섬유디자인학과와 동대학원 의상·섬유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다.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섬유공예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신구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동덕여대, 상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추천디자이너이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장관상과 디자인진흥원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조희은 Cho, Hee Eun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와 동대학원 공예과 염직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디자인이름 대표이다.

건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청주국제공예대전, 전국한지공예대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최인영 Choi, In Young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에서 섬유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학과에서 염색공예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한영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인 대전 등에서 입선하였고 온공예 전시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Jiseon Lee Iabara earned her BFA and MFA in Fiber Art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another MFA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She held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 Europe and the US. She was also invited to exhibitions from the Colorado State University and the Figge Art Museum. Currently, she is professor of the Fibers department at Oregon College of Art and Craft.

SoYun Ju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ber Arts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is current in the MFA program at Ewha Womans University. Jung won a special prize at the 50th Art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participated in the Expert Class Exhibi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Ye ryung Cho received her BFA and MFA in Textile Design from Sangmyung University. Cho is currently in her PhD coursework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majoring in Textile Craft, and working as adjunct professor at Shingu College and a lecture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Sangmyung University. She became one of the recommended designers by the Korea Design Exhibition. S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n, China, the US and Europe and won prizes from the Korea Design Exhibition,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d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Hee Eun Cho earned her BFA in Craft and MFA in Fabric-dyeing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ow, she is a PhD student and an adjunct professo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he also lectures at Konkuk University, Seoul Women’s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Sejong University. She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 the US and Japan and other countries. Cho won prizes at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nd Jeonju Hanji Craft Competition. Currently, she is CEO of Designism.

In Young Choi received her BFA from the department of Craft at Seoul Women’s University, majoring in textile arts. Currently, Choi is studying fabric-dyeing craft as a graduate student at Seoul Women’s University. Choi’s works were accepted for Hanyoung Textile Design Awards Competition and other design competitions. She also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craft exhibitions.

한아람 Aram Ha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Practice of Art and Latin American Studies 를 전공하였고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Studio Art/Fiber & Material 전공으로 석사를 하였다. 현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에 출강하고 있다. Babson College에서 개인전 <A Mend>를 열었고 전시와 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허영순 Her, Young Soon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섬유전공으로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였다. 프랑스 Ecole superieure d'art de Mulhouse 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숙명여대, 국립원주대, 건국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한국, 프랑스, 일본, 그리스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중국 Sino-Korea Modern design 우수작품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섬유조형대상전, 무등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현 Craftkorea 대표이다.

홍동희 Hong, Dong Hee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 학부 및 동대학원과 일본 다마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를 졸업하고 일본 보그학원 패치워크과를 수료하였다. 수원대학교, 숙명여대 정영양박물관 부설 퀼트전문가과정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Aram Han earned her BA in Art and Latin American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her MFA in Fiber and Material Studies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n 2013. She is currently a lecturer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Han gave her solo exhibition, <A Mend> at Babson College, and participated in a number of exhibitions and art projects.

Young Soon Her earned her BFA in Craft, and MFA and PhD in Textil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he further studied textile design at Ecole superieure d'art de Mulhouse, and currently lecture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onju National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S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 France, Japan, Greece and other countries. She also won prizes at the Sino-Korea Modern Design Competition, the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Competition, among others. Currently, she is CEO of Craftkorea.

Dong Hee Hong received her BFA and MF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ama Art University in Japan and completed a knitting academy in Japan, majoring in Patchwork. Currently, Hong lectures at the University of Suwon, and teaches quilting at CEM's Learning Center. She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행사
Event



전시
Exhibition



전시장 관람
Gallery Tour



청소년을 위한 교육
Youth Educational Program



특설교육 과정
C.E.M. Learning Center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을 짓다

총괄 정영양

전시 기획 홍경아, 정혜란

전시 진행 박혜경, 구소라, 박보라, 김송림, 한고은, 최휘환

도록 원고 홍경아, 정혜란

도록디자인 art publication design GOGH

사진 한국문화재 사진연구소 한정엽

영어번역 이지연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Korea

© 2016 판권소유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복제불허
Copyright © 2016_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E.M.

www.chungyoungyang.com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